

晋·隋·唐代的 診斷學 專門書籍에 관한 考察

金晶圭 · 尹暢烈*

I. 緒 論

韓方 診斷學의 專門書籍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다 른 分野에 대한 언급보다는 望聞問切의 四診에 대 한 언급과 辨證, 鑑別診斷 등에 대한 論述을 위주 로 하는 書籍을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차림 四 診과 辨證關聯 부분만을 따로 언급하는 書籍은 전 체 醫書의 분량을 고려해 볼 때 많지가 않다. 그 이유는 韓醫學의 특성상 診斷과 治療가 분명하게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診斷 書籍들도 사실은 앞의 책들을 인용한 부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새로운 理論을 제시하고 있 는 부분들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각의 書籍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과 장 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臨床家들이 주로 인용하고 있는 《醫學入門》, 《瀾湖脈學》 등의 書籍들이 실제로는 적지 않은 診斷學 專門書들을 引用書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內容의 연구는 診斷學의 學術史 研究와 古典의 臨床應 用에 꼭 필요한 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診斷學 專門書籍 研究는 歷代 診斷學 專門書籍들 중 後世에 끼친 영향이 비교적 큰 書 籍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도있는 校勘, 考察을 통해서 完成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같은 研究 에 선행해서 歷代 診斷學 專門書籍들의 意義, 醫 史學的 배경, 대강의 내용, 독특한 이론 등에 대한 기본적인 考察은 각각의 書籍들을 연구하는데 있 어서 事前資料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각 書籍들 의 連繫性을 파악하는데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 으로 생각된다.

본 研究에서 診斷學 專門書籍의 선택은 《中國 醫籍考》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中國醫籍考

》는 日本의 月波元胤이 저술한 책으로 1826년에 완성된 책이다. 그곳에는 2600여종에 달하는 중국 의 歷代醫籍에 대해서 醫書를 직접 보거나 史書, 各種古田, 地志, 博物志, 藝文志 등 有關記載를 열람하여 분류하고 분석하여 놓았다. 그중에 診斷에 대한 부분은 187卷에 해당하는 專門書籍을 제시하 고 있다. 비록, 최근에 출판된 國史와 현대에 저술 된 書籍들의 目錄이 빠져 있다는 실함을 가지고 있지만 中國의 醫學書籍을 고찰하고 살펴보는 데 기준으로 삼기에 적합한 書籍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研究는 本書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有 關 資料들을 참고하여 시행하였다.

本 論考에서 말하는 晋·隋·唐代란 西紀 265年 부터 960년에 해당하는 약 700여년의 時期로 실제 로는 兩晉, 南北朝, 隋, 唐, 五代까지를 포함하는 時期이다. 이 時期에는 診斷學 분야에 많은 발전 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業績은 《脈經》의 著 述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諸病源候論 》의 著述이라고 할 수 있다. 前者는 최초의 脈學 專門書籍으로서 後者는 최초의 證候病機學書籍으 로서 後世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筆者는 晋·隋·唐代的 診斷學 專門書籍의 內容 을 연구하는데 《脈經》과 《諸病源候論》의 內容 연구를 위주로 하고 기타 診斷書籍과 이 時期에 著述된 綜合醫書에 나타나는 診斷理論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考察한 결과 몇가지 知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의 重點事項 및 研究의 方法

본 研究의 目標는 歷代 診斷學 專門書籍들을 考 察하여 診斷學의 發展史 研究의 발판을 삼고 韓方 診斷學 관련 原書의 研究가 활성화되는데 일조를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診斷學敎室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연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아래와 같은 重點事項과 方法을 가지고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1. 본 연구에서 考察하고자 하는 韓方診斷學의 範圍는 四診과 辨證, 醫案, 特異한 診斷技術 등이 다.

2. 중점적으로 연구할 부분은 각 書籍의 原文 考察을 통한 內容의 연구이며 그 板本, 傳播史와 같은 書志學인 部分의 研究는 간략하게 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韓方診斷學 專門書籍의 선정은 丹波元胤의 《醫籍考》와 嚴世藝의 《中國醫籍通考》의 內容을 기준으로 한다.

4. 韓方診斷學 專門書籍 중에 後世에 끼친 영향이 크고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해볼 수 있는 書籍들은 자세한 原文의 考察과 有關 研究書들의 정리를 통하여 자세한 연구를 시행하고 그와 달리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쉽게 구해볼 수 없는 書籍들은 간략한 소개 수준의 연구를 시행한다.

5. 각 時代를 대표하며 後世에 끼친 영향이 큰 綜合醫書 중에 나타나는 診斷關聯 분야 內容에 관한 연구도 함께 시행한다.

6. 《王叔和脈訣》은 六朝時代 사람인 高陽生의 著作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대한 異見이 많고 실제로 그 책이 성행하기 시작한 時期는 宋代이며 《脈經》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의 論文을 작성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III. 研究內容

1. 晉·隋·唐代醫學의 概況 및 診斷學 專門書籍의 概況

(1) 醫學의 概況

이 시기는 《內經》, 《難經》, 《傷寒論》으로 대표되는 韓醫學의 經典이 출판된 시기와 金元四大家로 대표되는 韓醫學의 발전기의 사이에 위치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독창적인 醫學理論의 개발은 없었다. 하지만 적지 적지 않은 書籍들의 저술

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內經》, 《難經》, 《傷寒論》에 대한 註釋과 撰次 등 古代醫學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작업은 後代에 많은 醫學資料가 전해질 수 있게하는 밑거름이었다. 즉 이 시기의 醫學의 概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承古啓來”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다.

診斷學에 관해서도 독창적인 發展이 없었다는 見解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時期에 著述된 《脈經》의 診脈法이 그 후 이천년간 診脈의 대명사로 군림하고 있는 사실과 《諸病源候論》이 辨證思想과 鑑別診斷思想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할 때 그런 견해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시기 醫學의 개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서적들의 內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兩晉에서 隋唐에 이르기까지의 醫學發展의 主要特點이라면 臨床醫學에서의 豐富한 經驗의 累積을 들 수 있다. 따라서 疾病의 認識, 醫方創製, 新藥發見 등의 方面에 모두 比較的 커다란 進步가 있었다. 特別히 方書의 大量出現은 이 時期 醫學發展의 主要特色이다. 이와 比較하여 診斷 및 基本理論은 뚜렷한 進展이 없었다. 이러한 情況은 《隋書·經籍志》에 실린 醫學書目 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隋志는 모두 256部 4510卷을 실고 있는데 養生, 煉丹, 食經, 療馬 등을 除하면 眞正한 醫書는 모두 3953卷이고 그 中에 醫方類는 3714卷에 達하여 94%에 미치고 基本理論은 겨우 9部 51卷으로 《五臟論》과 《巢氏病源》 兩種 以外는 모두 《內經》, 《難經》 등 過去時代의 著作이다. 診斷方面에 關聯된 著作도 겨우 10部 29卷뿐이다. 이러한 情況은 新舊 《唐書·藝文志》도 마찬가지다. 이외에 唐代에서 가장 重要한 著作인 《千金方》과 《外臺秘要》의 具體的인 內容을 考察해보아도 역시 이러한 情況을 알 수 있다. 이 두 書는 大量으로 具體的인 藥方을 실고 診斷과 理論方面의 闡述은 比重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大部分 《內經》과 《難經》의 範疇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실은 藥方과의 有機關係를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全體的인 醫學의 發展을 보면 이 근 700年間은 比較的 發展이 緩慢했다¹⁾.

醫學의 발전은 兩晉, 南北朝, 隋, 唐, 五代의 시

기에 그 특징이 古代의 論述을 계승하고 전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望診學說도 당연히 것처럼 비교적 완전하게 계승하고 정리하는 것을 위주로 발전하였다. 《內經》, 《難經》, 《傷寒》의 증시에 따라 註釋과 編纂, 解釋의 작업이 이 시기에 처음 시작되었다. 《內經》 중 望診과 관련한 이론은 적지 않은 醫家들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자기의 견해를 제출하였다. 至元起와 楊上善, 王冰 등은 이 방면의 공헌이 탁월하다. 그들의 노력에 힘입어 비로소 “三皇遺文 燦然可觀”²⁾하게 되었다³⁾.

(2) 診斷學 專門書籍의 개황

이 시기에 저술된 것으로 판단되는 診斷學 專門書籍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⁴⁾.

이상의 書籍들은 대부분 현존하지 않지만 그중에 현존하는 書籍은 모두 여덟 권이다. 그중에서 敦煌石窟에서 출토된 세 권의 書籍은 아직까지 제대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出版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脈經》을 제외한 王叔和의 이름을 딴 著書들은 모두 後人들의 僞書이며 傳播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제대로 전해져서 後世에 영향을 끼친 診斷學 專門書籍은 《脈經》과 《諸病源候論》이라고 할 수 있다.

2. 後世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큰 診斷學 專門書籍

(1) 脈經

가. 著者에 대하여

<書名>	<著者>	<保存>	<備考>
脈經	佚名	殘缺	按 見<敦煌石室醫方書類纂>
玄感脈經	佚名	殘缺	按: 見<敦煌石室醫方書類纂>
三部脈全	佚名	殘缺	按: 見<敦煌石室醫方書類纂>
脈經	王叔和	存	
小兒脈訣	王叔和	佚 ¹⁾	
脈影圖	王叔和	存	現有版本: 日本<人元脈影歸指圖說>刻本皮紙印 書口作<脈影圖說>
圖注指南脈訣	王叔和	存	現有版本: 萬曆間刻本
脈訣	皇甫謐	佚	按: 丹波氏 稱其書曾見於 <楊玄操八十一難經注>
脈經	秦承祖	佚	按: 張杲<醫說> 載有 秦氏事略
脈訣集成	高陽生	存	現有版本: 元至正九年己丑(1349) 廬陵竹評書堂刻本
脈經鈔	許建吳	佚	
脈經	康普思	佚	
徐氏脈經	佚名	佚	
新脈經訣	徐裔	佚	
諸病源候論	巢元方	存	
脈經	王子顯	佚	
脈經	甄權	佚	
脈訣賦	甄權	佚	
脈經	李勣	佚 ²⁾	
療證歌	杜光庭	佚	

脈經의 著者는 王叔和인데 그의 이름은 撰이고 高平人으로 太醫丞을 지냈다. 그가 살던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데 <中國醫學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 있다.

그를 西晉時代의 人이라 했는데 皇甫謐의 <甲

1) 甄志亞主編,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1992. p.131.
 2) <黃帝內經> 王冰次注序에 보인다.
 3) 張樹生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7. p.6.
 4) 嚴世瑩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學堂, 1993. pp.745 - 769.

乙經·序文》에 “近代大醫令王叔和 撰次仲景 選論 甚精” 등의 말로 보건대 만약 西晉人이었다면 近代란 말을 붙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巢氏病源》에 皇甫謐이 寒石散을論한 것을 引用할 때 ‘近世尙書何晏’이라 했는데 여기서 近世는 三國時代를 가리킨다. 따라서 王叔和는 魏의 大醫令일 가능성이 많다. 또 이로 因하여 王叔和를 魏의 大醫令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中經·序》中에 ‘甘露中 吾病風’이란 말이 있는데, 甘露는 魏의 年號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實際로는 魏와 魏에 모두 甘露란 年號가 있었는데, 이 年號는 魏의 甘露(256~259年)를 가리키는 것이지 魏의 甘露(265年)는 아니다. 왜냐하면 魏의 甘露는 단지 1年이며, 晉의 太始元年到 該當되는데, 皇甫謐이 이미 晉에 들어간 이상 絶對로 晉의 年號를 써야지, 魏의 年號를 쓸 수 없다. 또한 皇甫謐이 晉에 있기 전에는 魏에서 司馬氏가 重用 하였으며 魏와는 아무런 關係가 없었다. 더욱 主要한 點은 晉書 本傳에 皇甫謐이 武帝에게 올린 書中에 風疾을 이미 19年間 앓았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甘露를 魏의 年號라 한다면 19年後는 284년에 該當되는데 이는 皇甫謐의 死亡 2年 뒤이다. 따라서 甘露란 魏의 年號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王叔和는 魏의 大醫令이었다. 그 活動時期는 張仲景의 後 皇甫謐의 前이다. 곧 紀元 三世紀 前半期 쯤이다⁵⁾.

이상의 考察을 본다면 王叔和는 魏의 大醫令으로 紀元 三世紀 前半期에 살았던 人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著書의 意義

本書는 中國에서 가장 빠른 脈學의 專門書籍인데 그는 한 以前의 脈學의 大成을 收集하고 《內經》과 《難經》 및 扁鵲, 華佗, 中景 등의 有關한 論述을 구분하여 脈理를 闡述하고 臨床과 연계시켰다. 中國의 脈學에 커다란 影響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뒤에는 國外로 전파가 되어서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醫學에 매우 큰 影響을 미쳤다⁶⁾.

脈名을 규정하고 그 指標를 제시하였으며 寸關尺의 分部와 그에 대한 臟腑의 배속 및 脈象을 病症과 連繫하여 설명하는 등의 脈學의 기본이론이 모두 이 책에서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매우 큰 權威性을 가지고 있어서 脈診으로 하여금 中醫學 中에서 다른 분야에 뒤지지 않는 중요한 獨立學科가 될 수 있게 하였고, 脈診을 쉽게 배울 수 있게 하였으며 널리 보급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밖에 《脈經》은 다시 약간의 古代 文獻資料를 참고 있는데 脈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客觀적으로 중요한 文獻이 散佚되는 것을 防止하였으며 내용이 여러 方面을 모두 섭렵하고 있으므로 전체 中醫學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脈經》은 후학들로 하여금 脈法을 應用하는 方法을 제시하였으며 그 淵源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⁷⁾.

이상의 內容을 고찰하면 《脈經》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中國에서 가장 빠른 脈學의 전문서적이다.
 - ② 古代脈法과 後世脈法을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한다⁸⁾.
 - ③ 아라비아와 페르시아에 전파되어 커다란 影響을 미쳤다.
 - ④ 精確한 脈名을 제시하고 그 脈象, 主病 등의 指標를 제시하였으며 寸關尺 部位에 대한 臟腑의 배속 등 처음으로 나타나는 脈學의 理論이 제시되고 있다.
 - ⑤ 많은 古代文獻 資料들을 참고 있어서 그들이 散佚되지 않는데 일조를 하였다.
 - ⑥ 後代에 脈診이 韓醫學의 다른 분야에 뒤지지 않는 學問分野로 성장하는 基本的인 역할을 하였으며 脈診의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다. 內容
- (가) 著作의 意圖 및 역사적 배경
- 王叔和의 自序를 보면 그 著作意圖와 역사적 배

7) 趙恩儉主編, 中醫脈診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143.

8) 여기에서 말하는 古代脈法과 後世脈法은 寸口部位가 診脈의 部位로 완전히 자리잡았을 기준으로서 하는데 《中醫脈診學》의 구분법이다

5) 甄志亞主編, 上揭書. p.135.

6) 鄭鐵濤主編, 實用中醫診斷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p.12.

경이 잘 나타나 있다.

脈理는 精微하고 其體는 難辨이라 弦緊浮扎가 展轉相類하야 在心易了나 指下難明이라 謂沈爲伏하면 則方治永乖오 以緩爲遲하면 則危殆立至리라 況有數候俱見하고 異病同脈者乎아 夫醫藥爲用은 性命所繫니 和謁至妙로도 猶或加思며 仲景明審으로도 亦候形證하야 一毫有疑면 則考校以求驗이러라 故傷寒有承氣之戒하고 嘔噦發下焦之間이라 而遺文遠旨은 代寡能用이오 舊經秘述은 奧而不售이라 遂令末學이 昧於原本하야 斥茲偏見하야 各逞己能하니 致微病成膏肓之變과 滯固絕振起之望이 良有以也니라 …… 今撰集岐伯以來 逮于華佗 經論要訣하야 合爲十卷하니 百病根源이 各以類例相從하고 鑿色證候도 靡不該備니라 其王阮傳載吳葛呂張所傳의 異同이 咸悉載錄하니 誠能留心研窮하야 究其微頤하면 則可以比蹤古賢이오 代無夭橫矣리라⁹⁾

이상의 내용을 보면 王叔和는 脈理는 깨우치기 어려워서 聖賢들도 심사숙고하던 것으로 세월이 오래감에 따라 그 본 뜻이 없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단순히 脈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鑿色證候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각 권별 내용의 소개¹⁰⁾

현재 볼 수 있는 《脈經》은 모두 宋代의 林億 등이 校刊하고 撰次한 十卷本이다. 비교적 방대한 정리를 거쳤기 때문에 이미 완전히 王叔和의 원본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고 단지 기본적으로 原書의 원래 모양과 卷數만을 보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第十卷의 “手檢圖”가 일찍부터 忘失되어 보충할 방법이 없었던 것과 문자가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各卷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완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第一卷은 “脈形狀指下秘訣”에서 二十四脈의 脈名과 脈形 및 相類脈을 제시하고 있고, “分別三關境界脈候所主”에서 獨取寸口法과 寸關尺의 部位,

尺寸에 반영하는 病症의 대체적인 위치를 제시하고 있고, “兩手六脈所主五臟六腑陰陽順逆”에서 兩手の 寸關尺에 臟腑를 배속하는 規定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세 부분은 王叔和가 제정한 것이거나 인정한 獨取寸口診法의 주요 내용인데 역시 後世脈法의 주된 부분이다. 기타 “平脈早晏”과 “持脈輕重”, “辨臟腑”, “平虛實”, “辨災怪”, “診將差” 등등은 《內經》과 《難經》, 仲景의 글을 인용하고 순서대로 편집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第二卷은 “平三關陰陽二十四氣脈”과 “平人迎 神門 氣口 前後脈”, “平三關病後并治宜”, “平奇經八脈病” 등을 포함하는데 寸關尺 三部診法을 써서 臟腑와 經絡病症을 診治하는 方法을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그 계통이 完備되어 있고 次序가 정연하다. 奇經八脈病은 附錄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標題 아래에 小字注를 달았는데 “八脈爲病 不在十二經 故以系此卷之末”이라고 하였다.

第三卷은 臟象, 季節, 病症, 生死 등으로 脈을論하고 있으며 五臟五腑에 따라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그중에 어떤 것은 새롭게 편찬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前人の 다른 책을 引用한 것도 있다.(《四時經》과 《素問》, 《鍼經》, 張仲景을 포함한다.)

第四卷에서는 “辨三部九候脈證”과 “評雜病脈”, “診五臟六腑氣絕證候”, “診四時相反脈”, “診損至脈” 등 모두 八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諸家의 說을 採用하여 이룬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중에 많은 부분에 매우 구체적인 경험과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診三部脈虛實決死生第八”중에는 “三部脈繼 非稱其人病便死”라고 하였고 “三部脈羸非其人得之死”라고 하였으며 “三部脈粗 長病得之死 卒病得之生”이라고 하였는데 모두 자세하면서도 辨證에 입각한 내용들이다. 이밖에 이처럼 前人の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용하는 가운데 갑자기 古代 脈學의 脈名인 堅, 急, 喘, 躁 등의 脈이 출현하며 全書중에 다른 곳에서도 또한 이런 證候들이 보일 때가 많아서 叔和의 뜻은 고대의 脈學을 계승하려는 意圖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王叔和가 처음으로 二十四脈의 說을 정했다는 말과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모순이 있는 듯 하

9)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188.

10) 吳承玉主編, 脈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의 내용을 검토하여 요약함.

다.

第五卷은 “張仲景脈法”一篇과 “扁鵲脈法” 및 “扁鵲華佗聲色要訣” 등 모두 四篇이다. 仲景脈法 부분은 《傷寒論·平脈法》에 보이고 扁鵲脈法은 지금 전하는 《難經》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밖에 第一卷 등에서 引用된 지금의 《難經》의 글에는 《難經》이나 扁鵲이란 이름이 나오기를 않는다. 이는 王叔和가 살던 時期에는 지금의 《難經》은 아직 《難經》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扁鵲이 저술하였다는 學說도 없었다는 것을 證明한다. 이 몇편은 각각의 角度에서 脈法과 經驗을 論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이 요점이 분명하고 실제 상황에 자세히 해당한다. 그리고, “聲色要訣” 중에 四診과 연계된 각종 診法은 그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 예를 들면 “病人髮如牛麻善怒者死”라고 하였고 “病人臍腫反出者死”라고 하였고 “病人屍臭者不可治”라고 하였다.

第六卷은 篇을 나누어 계통적으로 五臟六腑의 病症을 논술하고 있는데 古書와 前代들로부터 많이 引用하고 있다. 비록 어디에서 인용하였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 王叔和의 整理를 거쳐서 매우 계통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第七卷은 “不可發汗”과 “可發汗”하는 《傷寒論》의 형식처럼 可하고 不可하다는 내용으로 여러 篇의 형식을 삼았다. 계통적으로 《傷寒論》 六經全文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傷寒論》의 別本 중에 하나이다. 王叔和가 일찍이 仲景의 《傷寒論》의 編次를 정할 때에 “選論其精”하였다는 것은 이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맨 뒤에 나오는 熱病의 여러 편들은 《內經》에서 選用한 것이다.) 이 卷의 맨 뒤에는 “治傷寒形證所宜進退 昔王叔和集仲景平脈要論”이 있는데 이는 이 부분에 仲景의 傷寒 形證의 文字라고 소개되는 것들은 바로 王叔和가 撰集한 내용들이란 것을 證明한다. “傷寒形證”과 “平脈要論”은 仲景의 辨脈證并治의 思想과 符合하는 것이다. 이를 《脈經》에서 引用할 때에는 脈으로 爲主를 삼았기 때문에 최후에 “平脈要論”이란 說을 내었고 “治”에 있어서는 단지 處方만을 제시하고 藥味는 실지를 않았다. 考察해 보

건대 지금의 《傷寒論》중에 보이는 “可不可” 諸篇들은 실제로는 《脈經》의 第七卷에 실려 있는 것이다.

第八卷은 “平卒尸厥脈證” 등 十六篇의 雜症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의 《金櫃要略》에 보인다.

第九卷은 “平妊娠分別男女將產諸證” 등 八篇과 “平小兒雜病證” 一篇인데 대다수가 지금의 《金櫃要略》 중에 보인다.

第十卷의 篇題下注에 말하기를 “手檢圖三十一部”라고 하였는데 다만 그림은 이미 佚失되었고 文字도 또한 완전하지 않다.

(다) 脈診 이외의 四診에 관한 內容

《脈經》은 脈을 주로 논하고 있지만 臨床에서 脈과 證과 治를 결합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四診合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脈診 말고도 望診과 聞診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望診에 대한 內容

第五卷에 扁鵲과 華佗의 《察色聞聲要訣》을 소개하고 있는데 散佚된 望診에 대한 진귀한 자료를 계승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病人兩目皆有黃色者 其病方愈”라고 하였고, “病人面黃日青者 不死 青如草淪 死”, “病人面黑目白者 不死”¹¹⁾라고 하였는데 모두 顔色의 望診을 통하여 生死를 判가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② 聞診에 관한 內容

《脈經》의 聞診에 관한 內容 중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냄새를 맡아서 診病하는 것을 중시하였다는 것이다. 기타 聞診과 有關한 내용들은 각 篇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보이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脈經》중에 聞診과 有關한 기술은 적지 않은데 《卷一·平虛實第十》에서는 “人有三虛三實 何謂也 然 有脈之虛實 有病之虛實 有診之虛實 …… 病之虛實者 出者爲虛 入者爲實 言者爲虛 不言者爲實 緩者爲虛 急者爲實”¹²⁾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言者爲虛”는 慢性病은 오히려

11) 吳承玉主編, 上揭書, p.174.

12) 吳承玉主編, 上揭書, p.20.

언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不言者爲實”은 急性病은 邪氣가 壅蔽되는 것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를 듣는 것으로 病의 虛實을 辨別한다는 것이다.

《卷一·辨灾怪恐怖雜脈第十二》에서는 “言遲者風也 搖頭言者 其裏痛也”¹³⁾라고 하였고, “師持脈病因欠者 無病也”¹⁴⁾라고 하였는데 본론 중에는 “四診”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臨證時에는 脈診말고도 望診과 問診, 聞診의 세 가지 방법을 긴밀하게 결합해야 만이 변증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정확하게 證候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卷二·平人迫神門氣口前後脈第二》에서는 臟腑의 虛實을 논할 때에 “病若肺脹 汗出若露 上氣喘逆 咽中寒 如欲嘔狀”과 “病苦少氣不足以息 噎乾不朝津液”이 “肺虛”의 證候라고 하였고 “病苦胸中喘 腸鳴 虛渴”이 “大陽虛”¹⁵⁾라고 하였는데 喘逆聲과 腸鳴聲을 聞診하는 것으로 臟腑의 虛實을 정한 것이다¹⁶⁾.

라. 《脈經》에서 처음 보이는 독창적인 學說
(가) 獨取寸口法을 완성하였다.

《難經》의 第一難에서 “獨取寸口”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온다. 하지만 지금의 板本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難經》의 내용만으로 그 방법을 臨床에 그대로 응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寸關尺에 대한 정확한 部位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關脈이 마치 寸脈과 尺脈의 경계선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脈經·分別三關境界候脈所主》에서는 “從魚際至高骨却行一寸 其中名曰寸口 從寸至尺 名曰尺澤 寸後尺前 名曰關 陽出陰入 以關爲界 陰出三分 陰入三分 故曰三陰三陽 陽生于尺 動于寸 陰生于寸 動于尺”¹⁷⁾이라고 하였는데, 이 段落의 論述은 寸과 尺이 각각 一寸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각각 三分을 취하여 關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

로, 실제로는 寸이 六分이고 關이 六分이고 尺이 七分이 된다. 이는 寸關尺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실제 응용하는데 편하게 한 것이다.

今本 《難經》은 비록 “第一難”에서 獨取寸口法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몇가지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寸關尺의 위치에 대한 문제를 《難經》의 說에 의하면 하나의 分界線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각 部位의 길이에 대해서는言及이 없다. 寸尺에 대해서도 단지 寸은 陽을 主하고 尺은 陰을 主한다고만 하였고 臟腑를 分割함에 있어서는 浮沈法을 사용하였다. 仲景은 《難經》의 脈法을 參考하여 사용하였지만 關에 대해서는 단지 “關上”이라고만 하고 關脈의 길이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때때로 趺陽, 少陰, 陽明 등의 脈을 參用하며 특히 雜症에 있어서는 趺陽脈의 사용이 더욱 많다. 이는 王叔和 以前에는 獨取寸口法이 비록 출현하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란 것을 말하고 있으며 《脈經》이 출현한 이후에 겨우 이런 脈學에 있어서 歷史的인 改革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¹⁸⁾.

(나) 脈名과 脈形規範의 制定

《脈經》이전에는 脈象의 名稱이 통일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脈象에 대한 聯想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後人에게 脈學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脈經》의 卓越한 貢獻중에 하나로 24種의 脈象을 정하여 名稱과 그것이 손가락 아래에서 느껴지는 形象에 대해서 전형적인 描寫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脈形狀指下秘訣》에서 列擧하고 있는 24種의 脈象에는 浮, 芤, 滑, 數, 促, 弦, 緊, 沈, 伏, 革, 實, 微, 澁, 細, 軟, 弱, 虛, 散, 緩, 遲, 結, 代, 動 등이 있다.

《脈經》이전에는 지금 볼 수 있는 古書 중에 언급하고 있는 脈象의 명칭이 매우 많았었다. 그리고, 대다수가 그들의 標準이나 脈名의 문제를

13) 吳承玉主編, 上揭書, p.23.

14) 吳承玉主編, 上揭書, p.23.

15) 吳承玉主編, 上揭書, p.39.

16) 肖相如主編, 中華醫學問診大全,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8, p.9.

17) 吳承玉主編, 上揭書, p.5.

18) 趙恩儉主編, 上揭書, p151.

설명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매우 많았다. 그중에는 一脈에 二名이 있는 경우도 있고, 二脈에 一名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不同한 脈象의 性質과 條件들이 부분적으로 중복 교차되는 경우도 있었다. 一脈이 다르게 解釋되는 경우도 있고 平脈과 病脈이 나뉘지 않는 경우도 있고 解釋할 수도 없고 이해할 방법도 없는 脈名도 있었다. 各書의 脈象의 概念과 用法, 分寸이 不同하였으며 동일한 책 중에서도 또한 때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당연히 脈法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피할 수 없었던 現狀이다. 비록 그것이 풍부하고 다채로운 것을 反映하였기는 하지만 혼란스럽고 統一되지 않은 問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

《脈經》의 第一卷 第一篇은 “脈形狀指下秘訣第一”이라고 하였고 注를 달아서 “二十四種”이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脈象을 정리하여 浮, 芤, 洪, 滑, 數, 促, 弦, 緊, 沈, 伏, 革, 實, 微, 澁, 細, 軟, 弱, 散, 緩, 遲, 結, 代, 動으로 歸納하였다. 각 脈象에 그의 指標를 제시하였으며 이밖에 正文의 아래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적었다. 예를 들면 芤脈 正文에는 “浮大而軟 按之中央空兩邊實”이라고 말하였고, 그 아래에 小主를 달아서 “一曰手下無 兩旁有”라고 부연 설명을 하였다. 또 弦脈의 正文에는 “舉之無有 按之如弓弦狀”이라고 하였고 小注에서는 “一曰如張弓弦 按之不移 又曰 浮緊爲弦”이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脈經》 이후의 脈學과 有關한 著作은 모두 二十四脈으로 基礎를 삼고 있다. 이는 《脈經》의 規範이 나온 이후에 脈學이 새로운 歷史의 段階에 이르렀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는 古脈學의 終結과 後世脈學의 개시를 의미한다. 脈形의 規範은 後世脈法의 準칙을 이루었다.

“脈形狀指下秘訣第一” 중에는 脈象이 서로 비슷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浮與芤相類 弦與緊相類 滑與數相類 革與實相類 沈與伏相類 微與澁相類 軟與弱相類 緩與遲相類” 등인데 이는 後人이 脈象의 分類를 하는데 基礎를 제공하였다¹⁹⁾.

19) 趙恩儉主編, 上揭書. pp.151 - 153.

(다) 寸口三關과 臟腑配屬

寸關尺에 臟腑를 配屬하는 것에 관하여 《兩手六脈所主五臟六腑陰陽順逆》에서는 《脈法贊》을 인용하여 “肝心出左 脾肺出右 腎與命門俱出尺部”²⁰⁾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五臟을 寸關尺에 配屬시키는 기본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이 寸關尺의 臟腑 分配方法은 《脈經》이후에 비록 醫家에 따라 약간의 異見들이 있지만 그 根本은 기본적으로 이곳의 내용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臟腑를 配屬하는 문제에 있어서 《脈經》은 第一卷에 《兩手六脈所主五臟六腑陰陽逆順第七》중에서 《脈法贊》의 글을 引用하여 “心部在左手關前寸口是也 卽手少陰經也 與手太陽爲表裏 以小腸合爲腑 合于上焦名曰神庭 在龜尾下五分 肝部在左手關上是也 足厥陰經也 與足少陰爲表裏 以膽合爲腑 合于中焦 名曰胞門 在太倉左右三寸 腎部在左手關後尺中是也 足少陰經也 與足太陽爲表裏 以膀胱合爲腑 合于下焦 在關元左 肺部在右手關前寸口是也 手太陰經也 與手陽明爲表裏 以大腸合爲腑 合于上焦 名曰呼吸之府 在雲門 脾部在右手關上是也 足太陽經也 與足陽明爲表裏 以胃合爲腑 合于中焦 脾胃之間 名曰章門 在季脇前一寸半 腎部在右手關後尺中是也 足少陰經也 與足太陽爲表裏 以膀胱合爲腑 合于下焦 在關元右左屬腎 右爲子戶 名曰三焦”²¹⁾라고 하였다. 이는 兩手의 寸關尺 部位를 臟腑에 配屬한 方法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것이다. 이런 기초위에 第二卷에서 王叔和는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후의 학자는 비록 不同한 學說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脈經》의 學說을 따르고 있다²²⁾.

마. 《脈經》의 傳播科程²³⁾

《脈經》은 著述된 후에 곧장 세상에 알려졌는데 高湛의 《養生論》에서는 “王叔和 性沈靜 好著述 考核遺文 採摭群論撰成 《脈經》十卷”이라고 하였는데, (《太平御覽》과 《冊府元龜》에 보인

20) 吳承玉主編, 上揭書. p.12.

21) 吳承玉主編, 上揭書. p.12 - 13.

22) 趙恩儉主編, 上揭書. p.154.

23) 趙恩儉主編, 上揭書. pp.145 - 149. 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다.) 그후에 《名醫傳》과 《醫說》 등에 모두 傳述되는 내용이 있다. 歷史書에 보이는 것은 隋唐以來의 《隋書經籍志》, 《唐書藝文志》, 《崇文總目輯釋》, 《通志藝文略》, 《郡齋讀書後志》, 《文獻通考》, 《宋史藝文志》 등에 모두 記錄된 것이 있다. 宋 이후에도 官私의 目錄에 記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脈學 著作들 중에는 《脈經》을 引用한 것이 더욱 많다. 醫學名著 중에 《千金方》과 같은 것들은 《脈經》의 二十四脈에 대한 全文을 그대로 轉載하고 있다. 宋代에 校刊된 醫書에도 《脈經》이 안에 있다.

《脈經》은 비록 세상에 전해졌지만 文字가 예스럽고 深奧하며 分量도 비교적 많아서 고대에 베껴쓰기가 쉽지 않았으며 일반 醫家들이 익히기도 쉽지 않았다. 아울러, 時代가 오래되면서 베끼는데에 적지않은 착오와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北宋의 熙寧年間에 林億 등이 校正하여 《脈經》을 간행할 때에 세 종류의 板本을 根據로 하였는데 모두 이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많은 정리가 있는 후에야 비로소 간행될 수가 있었다. 林億 등은 序文에서

“臣等各理所學 博求衆本 據經爲斷 去取非私 大低世之傳授不一 其別有三 有以隋巢元方時行病源爲第十卷者 考其時而繆自破 有以第五分上下卷 而撮諸篇之文 別增篇目者 推其本文 而義無取稽 是二者均之未覩厥眞 各秘其所藏爾 今則考以素問九墟靈樞太素難經甲乙仲景之書 並千金方及翼 說脈之篇以校之 除去重複 補其脫漏 其篇第亦頗爲改易 使以類相從 仍舊爲一十卷 總九十七篇 施之於人 俾披卷者足以占外以知內 視死而別生 無待飲上池之水矣”²⁴⁾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林億 등이 세 종류의 책을 근거로 하였는데 앞의 두 권은 문제가 많았으며 그 때문에 대량의 정리를 해야만 하였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再編을 하고 나서야 지금의 《脈經》을 完成해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傳習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매우 일찍부터 第十卷의 “手檢圖”부분이 佚失되었

다는 것인데 巢氏의 《病源》에서는 第五卷을 나누어 두 卷으로 만들고 다른 내용을 삼입하여 十卷이란 숫자를 채웠다. 이밖에 중복되고 빠지고 篇章의 순서가 섞이거나 文字가 訛傳된 곳도 적지 않다. 林億 등이 校勘하고 정리한 이후에 十卷 九十七篇의 數를 回復하였지만 많은 곳이 小注의 형식을 취하여 諸本の 차이점을 설명하고 有關한 文獻과 비교하여 출입시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또한 理致에 근거하여 글을 推理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第四卷에는 “臣億等謹按 千金云 此中不論肺金之氣 疏略未諭 指南又推五行亦頗顛倒 待求別錄也”라고 하였으며, 또 第五卷에는 “臣億等詳水下二刻 疑檢舊本如此”라고 하였다. 林億 등이 校刊 出版한 《脈經》 第十卷의 手檢圖도 여전히 文字가 빠져 있어서 완전하지가 못하다.

北宋 時代에 《脈經》이 刊行되었는데 그리 많은 보급되지를 못하였다. 가장 중요한 原因은 五代와 北宋이래로 王叔和의 이름을 빌어서 僞撰된 《脈訣》이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脈訣》은 비록 卑俗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通俗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고 歌訣의 形式을 빌어 쉽게 기억할 수가 있었다. 一般人 들은 이것이 王叔和의 著作이라고 인식하여 쉽게 通行하게 되었다. 《脈經》은 도리어 약간의 사람들만이 알게 되었다. 후에 매우 많은 學者들이 《脈訣》이 僞書라고 비판하였지만 《脈訣》의 전승에 영향을 끼치지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脈訣》에 착오가 아주 많이 나온다고 하여도 二十四脈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叔和에게서 取한 것이며 獨取寸口의 방법도 《脈訣》이 僞書인 것이 사실이고 수준이 낮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근본은 《脈經》에 두고 있으며, 나머지 各家의 脈學著作도 모두 叔和에게서 法을 취하면서 《脈經》을 추종하려고 하고 《脈訣》을 멀리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脈訣》이 어느 한 시기에 《脈經》이 전파되는 데에는 나쁜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脈經》에서 세운 後世脈法의 “脈法”에는 영향을 끼치지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結論적으로 <<脈經>>의 傳播에는 傳寫의 誤

24) 丹波元胤, 上揭書. p.189.

謬, 偽書인 <<脈訣>>의 出現, 第十卷 手檢圖의 散佚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現存하는 <<脈經>>이 原著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後代의 많은 醫家들이 <<脈經>>을 脈學의 經典으로 삼았으며 비록 널리 전파되지는 못했지만 賢明한 醫家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傳誦되었으므로 그 基本理論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존재하는 板本의 목록을 《中國醫籍通考》의 내용을 근거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現有版本

元天歷三年庚午(1330)廣勤書堂刻本

明成化間据元泰定本翻刻(殘)

明趙府居敬堂刻本

見<古今醫統正脈全書>

又<古今醫統正脈全書>單行本

明萬曆三年乙亥(1575)福建刻本

明萬曆五年丁丑(1577)童氏吳興書舍梓本

明天啓四年甲子(1624)繆希雍校訂 于潤甫刊于 金壇(前附<人元脈影歸指圖說>二卷 晉王叔和著 後附<汪氏痘書> 明汪若原著)

明末鹿城沈際飛重訂刊本(前附<人元脈影歸指圖說>二卷)

明刻本

見<說郛>本(題作唐甄權撰)

清嘉慶二十五年庚辰(1820)克復堂刻本

清嘉慶刻本

清道光十三年癸巳(1833)蜀中怡山館校刻本

清道光十三年成都茹古書局印本

清道光二十三年癸卯(1843)嘉定西溪草廬黃蜀校刊

本

清道光二十四年甲辰(1844)守山閣總書本

清道光二十九年己酉(1849)奉新廖積性氏据宋本校元明諸本重刻

清咸豐六年丙辰至七年丁巳(1856-1857)張爾熾校刻本

清咸豐六年丙辰(1856)藝輝堂藏刊

清光緒間刻本

見<姜氏醫學總書>

清光緒十六年庚寅(1890)重刊<守中正齋總書>之

一

清光緒十六年蜀中何氏據同治壬戌姜國伊本復刊(姜氏本爲紫東閣所梓)

見<周氏醫學總書>

又清光緒十七年辛卯(1891)池陽<周氏醫學總書>單行本

清光緒十九年癸巳(1893)宜都楊守敬景蘇園据宋本校元明諸本刊刻

清光緒二十年甲午(1894)圖書集成印書局鉛印本

清光緒二十二年丙申(1896)新化三味堂刻本

清光緒三十一年乙巳(1905)長沙徐氏橘影園復刊景蘇園本(有影宋字樣)

見<守山閣總書>(光緒間鴻文書局影印本 民國間博古齋影印本)

民國間文瑞樓据<周氏醫學總書>本影印

民國間鉛印本

上海進化書局影印復宋本

1935年涵芬樓據元廣勤書堂刊本影印<四部總刊>子部之一單行本

1935年商務印書館據元廣勤書堂本鉛印<國學基本總書>單行本

見<萬有文庫>第二集

<中國醫學大成>本

1940年中華書局鉛印<中國醫藥匯海>單行本

1940-1944年商務印書館鉛印本

1954, 1955年商務印書館據元廣勤書堂本鉛印

1956年人民衛生出版社据元廣勤書堂本影印

1957年上海衛生出版社据光緒癸巳景蘇園復宋本影印

1958年上海科技衛生出版社據景蘇園復宋本影印

(2) <諸病源候論>

가. 著者

<諸病源候論>의 著者는 巢元方인데 그에 관해서는 宋代에 本書를 간행할 때 宋綬가 本書의 序文에서 隋 大業中(A.D. 605 - 616年)의 太醫라고 밝힌 것 밖에는 史籍이 없다.

宋綬序曰 …… 諸病源候論者는 隋大業中에 太醫

25) 嚴世董主編, 上揭書. pp.755 - 757.

巢元方 등이 奉詔所作也라²⁶⁾

나. 著書의 意義

《諸病源候論》의 의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辨證 및 鑑別診斷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논하고 病因과 病機에 대해서 敍述한 최초의 證候診斷學 專門書籍이라는 것이다. 全書는 모두 67門이고 1720 候이며 每門은 우선 總論이 있고 그 다음에 각 病症의 源候와 病機를 提示하고 있으며 導引에 대한 내용 말고는 治法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 내용은 매우 풍부하여 傳染病, 寄生蟲病, 內科病, 外科病, 皮膚科病, 五官科病, 創傷, 骨傷病, 婦產科病, 兒科病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疾病에 대한 論술이 있다. 그리고, 배열된 순서가 정연하여 鑑別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으며 각 病의 敍述은 모두 자세하고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後代의 《千金方》, 《外臺秘要》 등도 本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晉·隋·唐代 醫學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書籍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의의를 역대 板本의 序文을 통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宋綬序曰 …… 諸病源候論者는 隋大業中太醫巢元方等奉詔所作也라 會粹群說하고 沈研精理하여 形脈治證에 罔不該集니라 明居處爰欲風濕之所感하여 示鍼鑿鑿引湯熨之所宜하니 誠術藝之楷模 而診察之津涉이라²⁷⁾

上文의 내용은 本書가 여러 學說들을 모아서 올바른 診斷을 하는데 충분한 資料를 갖추고 있고 病源을 밝히고 導引按鑿鍼鑿 등의 治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醫術 특히 診察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書籍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趙希弁曰 巢氏諸病源候論五十卷은 右隋巢元方等撰이라 元方이 大業中被命與諸醫로 共論衆病所起之源하니라²⁸⁾

上文의 내용은 本書가 衆病이 일어나는 根源에 대해서 論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陳振孫曰 巢氏病源論五十卷은 隋太醫博士巢元方

等撰하니 大業六年也러라 惟論病症이오 不載方藥이라 今按千金方諸論도 多本此書하니 業醫者가 可以參校니라²⁹⁾

上文의 내용은 本書가 病症에 대해서 주로 논하는 것과 孫思邈의 《千金方》도 이 책의 내용을 많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周學海新刻病源候論序에 曰 …… 獨巢氏所輯 病源候論이 見傳于世하니 今日而欲考隋唐以前明醫之論이면 獨有此書而已耳니라 其書多載世醫方論이나 反于靈素採取가 甚簡하니 其意가 蓋欲爲靈素後之一書니라 故不復一一重出也니라 中間에 淺略于源候하야 無所發明者가 有之나 要其大謬는 亦罕矣니라 且博采兼搜하야 于人間病名에 略盡하니 可不謂勤矣哉아 顧以有論無方하니 世之好讀湯頭歌趣捷徑者는 多惡其迂遠하야 不取其書니라³⁰⁾

上文의 내용은 隋唐以前 名醫들의 醫學水準을 평가하는데 本書가 중요한 役割을 한다는 것과 《靈樞》와 《素問》 등에서 再引用한 것보다는 그 이후의 여러 學說들을 採錄하고 있는 理由가 스스로 靈素의 後書가 되고자 하였다는 것과 世醫들 중에서 處方만을 좇는 사람들에 의하여 迂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四庫全書提要》에 曰 …… 陳振孫書錄解題稱王燾外臺秘要諸論多本此書 今勘之 信然 ……

內經以下 自張機 王叔和 葛洪數家書外 此爲最古究其旨要 亦可云證治之津梁矣³¹⁾

上文의 내용은 王燾의 《外臺秘要》도 이 책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내용과 本書가 《內經》, 仲景, 叔和, 葛洪의 뒤를 잇는 중요한 書籍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本書에서 治法을 말하지 않은 原因은, 書中の 말로 보면 '湯熨針石別有正方'이기 때문이라 했다. 이는 한편으로 當時에 方書가 普遍流行하므로 重複해서 列舉할 必要가 없었으며, 한편으론 本書가 이른바 補養宣導를 重視했음을 說明해 준다. 《諸病源候論》은 中國 七世紀初의 매우 價値있는 醫書이다. 이 書는 廣泛하고도 比較的 系統的으로

26) 嚴世蓑主編, 上揭書. p.764.

27) 嚴世蓑主編, 上揭書. p.764.

28) 嚴世蓑主編, 上揭書. p.764.

29) 嚴世蓑主編, 上揭書. pp.764 - 765.

30) 嚴世蓑主編, 上揭書. pp.765 - 766.

31) 嚴世蓑主編, 上揭書. p.766.

많은 疾病을 記載하였으며, 이러한 疾病에 대한 記載도 또 比較的 詳細하고 明確하게 그 症狀을 描寫했을 뿐만 아니라, 比較的 合理的이고, 實際의 으로 그 理論을 밝혔다. 따라서 後世의 醫學發展에 대단한 影響을 미쳤다. 그리고 唐以後의 많은 醫書가 모두 直接 間接으로 이 書의 原文과 論點을 引用했을 뿐만 아니라, 宋代에는 醫師들의 必須科目으로 指定되고, 아울러 國家考試 科目의 하나로 되었다. 이로 보아도 이 書의 中國醫學發展 史上의 그 重要性을 알 수 있다³²⁾.

이 책이 後世에 미친 影響은 매우 큰데 《外臺秘要》, 《太平聖惠方》의 刻刻의 病에 대한 證候 分析도 모두 이 책으로부터 인용되었다. 日本의 《醫心方》도 이를 따르고 있다³³⁾.

다. 傳播科程 要約³⁴⁾

《諸病源候論》은 《隋書·經籍志》에 《論病源候論》五卷, 目一卷, 吳景賢撰으로 되어 있고, 《舊唐書經籍志》는 《諸病源候論》50卷 吳景撰이라고 하고, 《新唐書藝文志》에는 《吳景諸病源候論》50卷을 記載하고, 또 《巢氏諸病源候論》50卷을 記載하고 있다. 그리고 또 後者는 撰者가 巢元方으로 되어 있다. 宋代에 이르러서는 《通志藝文略》에서 《新唐書》와 같이 同名書 二種을 실은 이외에는 其他, 《崇文總目》, 《遂初堂書目》, 《文獻通考》와 《宋史藝文志》 등은 다만 《巢氏諸病源候論》만 실고, 《吳景賢諸病源候論》는 실지 않았다. 그 밖에 《北史·齊鐵杖傳》의 記載를 보면, 當時에 確實히 吳景賢이란 醫者가 있었다. 따라서 後人들이 이에 대하여 2가지로 推測을 하였다. 그 하나는 當時에 2부의 《諸病源候論》이 있었는데, 하나는 吳景賢의 撰이고, 하나는 巢元方の 撰이었으며, 宋代以後로 吳氏書는 散失되고, 巢氏病源만 전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書는 本來 奉詔하여 撰集한 것으로, 巢氏와 吳氏가 함께 그 일에 參與했기 때문에, 唐代의 《新修本草》를 或 李積이라 했다가 或 蘇敬으로 했다하는 것과

꼭 같이, 或 吳氏로, 或 巢氏로 題한 것이라는 것이다. 後者의 推測이 比較的 合理的인 것 같다.

現存하는 板本을 《中國醫籍通考》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現有板本

元刻本

明新安汪濟川 方廣校 欽方東云校刻本于聚奎堂 (扉頁作西爽堂藏板)

明新安汪氏主一齊校刊本

明嘉靖間刻本

明萬曆年間吳勉學校刊本

四庫全書本(文津閣本, 文淵閣本)

清乾隆五十一年丙午(1786)抄本

清嘉慶十三年戊辰(1808)吳門經義齋雕 十四年己巳(1809)印行本(簡稱《巢氏病源》)

清光緒元年乙亥(1875)湖北崇文書局刻本

清光緒十二年丙戌(1886)印本

清光緒十七年辛卯(1891)湖北官書局重刻本

清光緒十七年池陽周氏校刊本

1912年 湖北官書處重刊本

清光緒二十二年丙申(1896)博文書局石印本

1956年人民衛生出版社影印本

抄本

日本正保二年(1645)書林萬屋作古衛門刊行本

又同年上村次郎右衛門刊本

見周氏醫書總書初集

見中國醫學大成³⁵⁾

見中國醫學大成³⁵⁾

라. 내용상의 特徵 및 貢獻³⁶⁾

《諸病源候論》은 엄격히 말하면 前代의 理論을 계승하고 總括한 書籍의 하나로 그 理論上에 있어서 獨創의 이거나 特異한 것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에 제시하듯이 疾病에 대한 광범하며 精確하고 자세한 인식과 분석을 시행한 점이나 《內經》의 기본이론에 근거하여 證候, 病因, 病機, 病變 등을 설명하여 疾病의 診斷과 豫後判斷에 도움을 준 점, 疾病의 체계적인 分類를 시행하여 鑑別診斷에 도움을 준 점 등을 그 내용의 중

32) 甄志亞主編, 上揭書. p.138.

33) 鄭鐵濤主編, 上揭書. p.8.

34) 甄志亞主編, 上揭書. p.138. 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35) 嚴世藝主編, 上揭書. p.768.

36) 甄志亞主編, 上揭書. pp.138 - 140. 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가) 疾病에 대한 광범위하고 자세한 認識과 分析을 시행함.

本書는 1700餘種의 病候에 대해서 論述하고 있는데 그중에 內科病이 絶對多數를 차지하지만, 其他 疾病에 대한 記載도 매우 詳細하여, 外科의 金創一類만도 23種의 症候를 記載하였고, 婦科 雜病에 140餘種, 皮膚病을 40餘種, 眼科病을 38種씩 記載하였다. 이러한 記載는 過去의 著作과 比較할 때, 몇 배나 되는 지도 모른다. 모든 類의 疾病의 記載가 모두 이와 같아서 風病에 關하여도 59種을 記載하였고, 虛勞도 75種이나 記載하였다. 描寫의 詳確도 以前에 比하여 大단한 進歩가 있었다.

內科方面에서는 風病, 虛勞, 傷寒, 濕病, 熱病 等 이른바 大病을 特히 詳細히 記載했지만, 其他 消渴, 脚氣, 黃疸, 水病, 虫症 等도 모두 專章을 設定해서 記述했다. 그 밖에 外科의 丹毒, 破傷風, 結核性疾患 癰疽, 痔瘻, 火傷 等, 眼科의 翼狀贅片 青光眼, 夜盲症 等, 婦人科의 月經不調, 白帶, 子宮脫出, 乳腺炎, 妊娠惡阻, 難産, 産後惡露 等 및 鼻息肉, 兔唇, 濕疹, 癬疥 等의 描寫도 매우 正確하여, 오늘날 우리들이 보면 곧 現在의 어떤 病을 말하는가를 確定할 수 있다. 이에 몇 개의 例를 들겠다.

① 卷五 消渴候: “夫消渴者 渴不止 小便多是也 …… 其病變多發癰疽 …… 有病口甘者 …… 此肥美之所發 此人必數食甘美而多肥也”³⁷⁾

② 卷十三 脚氣緩弱候: “凡脚氣病 皆由感風毒所致 得此病多不即覺 …… 當熟察之 其狀自膝至脚有不仁 或若痺 或淫淫如虫所緣 …… 或脚屈弱 不能行 或微腫 或酷冷 或疼痛 或緩縱不隨 或學急 …… 或有物如指 發於臑腸 徑上衝心 氣上者 或舉體轉筋 或壯熱頭痛 或心胸衝悸 寢處不欲見明 …… 或言語錯亂 有善忘誤者 …… 此皆病之證也 若治之緩 便上入腹 入腹或腫 或不腫 胸脇滿 氣上便殺人 急者不全日 緩或者 一二三月”³⁸⁾

③ 卷二 諸癩候: “凡癩病 …… 初覺皮膚不仁 或

淫淫苦痒如虫行 或眼見物如垂絲 或隱疹輒赤黑 …… 令人煩痺 或汗不流泄 …… 身體偏痺搔之生瘡 …… 頑如錢大 …… 錐刺不痛 …… 眉睫墮落 鼻柱崩倒 …… 從頭面起即爲瘡肉 如核桃小瘰”³⁹⁾

以上에서 消渴病에 癰疽가 많이 發生한다든지, 數食甘美와 有關하다는 認識, 脚氣病 症狀의 描寫, 特히 氣上衝心에 대한 認識, 癩病의 皮膚不仁, 汗不流泄, 錐刺不通 等에 대한 認識은 長期間의 仔細한 觀察이 없었다면 알 수 없는 것이다.

(나) 《內經》의 基本理論에 근거하여 證候, 病因, 病機, 病變 등을 說明

本書는 一千七百餘種의 症候에 대하여, 모두 《內經》의 基本理論에 根據하여 病因, 病機, 病變 등을 具體的으로 闡述하였기 때문에, 每種의 疾病과 每種의 症候의 發生과 演變過程에 모두 比較的 素朴하고도 基本理論과 一致하는 解釋을 했다. 이러한 解釋은 비록 想像과 臆測을 면치 못했고, 或者는 너무 簡單한 곳도 있지만 매우 合理的일 뿐만 아니라, 臨床의 豫防 및 治療에 理論根據를 提供한 解釋도 적지 않다.

즉 時氣勞復候에 대한 해석, “夫病新瘥者 血氣尙虛 津液未復 因即勞動 更成病焉 若言語思慮則勞於神 梳頭澡洗則勞於力 未堪勞而強勞之 則生熱”⁴⁰⁾,

時氣食復候에 대한 解釋 “夫病新瘥者 脾胃尙虛 穀食未復 若即食肥肉魚膾 餅餌棗栗之屬 則未能消化 停積在於腸胃 使脹滿結實 因更發熱 復爲病者 名曰食復也”⁴¹⁾,

時氣小便不通候에 대한 解釋 “此由汗後 津液虛少 其人小腸有伏熱 故小便不通也”⁴²⁾,

虛勞咳嗽候에 대한 解釋 “虛勞而咳嗽者 臟腑氣衰 邪傷於肺故也, 久不已 令人胸背微痛 或驚悸煩滿 或喘息上氣 或咳逆唾血 此皆臟腑咳也”⁴³⁾,

石水候에 대한 解釋 “腎主水 腎虛則水氣妄行 不依經絡 停聚結在臍間 小腹腫大 如石 故云石水 其

39) 巢元方, 上揭書. p.570.

40) 巢元方, 上揭書. p.627.

41) 巢元方, 上揭書. p.627.

42) 巢元方, 上揭書. p.626.

43) 巢元方, 上揭書. p.580.

37)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中國醫學大系 2卷, 서울, 圖書出版鼎談. p.591.

38) 巢元方, 上揭書. pp.655 - 656.

候引脇下 脹痛而不喘是也”⁴⁴⁾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解釋은 《內經》에 比하여 더욱 詳實하고, 더욱 合理的일 뿐만 아니라, 特別히 重要的 것은 하나하나의 證候를 理論的으로 闡述함으로 《內經》의 基本理論과 臨床治療를 한 걸음 더 가깝게 密着시켜, 東醫學 理論이 生理病理에서 豫防 治療에 이르기까지, 比較的 完全한 理論體系를 形成하는데 커다란 促進作用을 하였다 는 것이다. 따라서 本書가 漢醫學 理論의 定立에 미친 影響은 무시 못할 것이다.

(나) 體系的인 疾病의 分類를 施行

全書를 大體로 內科病, 五官病, 外科 및 皮膚病, 婦產科病, 小兒科病의 次例로 排列했다. 內科病 中에서는 風病, 虛勞病, 熱性病(包括 傷寒, 溫病, 熱病, 時氣病 等) 等 全身性이며 이른바 大病에 속하는 病을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은 다시 證候特徵 或은 臟腑系統에 根據하여, 各種疾病을 分類하여 敍述했는데, 그 中에서 消渴, 脚氣, 黃疸 등은 獨立疾病으로 보아, 專章으로 敍述했다. 脾胃病, 嘔噦病, 食不消病 等を 한군데에 配列한 것은, 本書 作者가 이미 疾病分類에 대하여 比較的 進歩된 見解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特別히 婦人科 疾病을 雜病, 妊娠病, 難産病, 將産病, 産後病으로 나눈 것은 더욱 注意할 만한 見解이다.

마. 內容

本書는 최초의 病因證候學 專門書籍으로서 辨證과 鑑別診斷에 대한 內容이 소개되고 있다. 그 內容을 參考書籍을 인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辨證

① 六經辨證

本書의 七卷과 八卷의 七十二候는 모두 傷寒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 특징은 《內經·熱論》에 傷寒과 有關한 內容에 근거하여 傷寒의 날짜에 따른 病候의 變化를 천술하고 있으며 매 證候의 病因과 病機, 臨床의 顯證을 論述하고 있는데 매우 간단하다. 그중에는 傷寒의 登豆瘡에 대한 內容이 있는데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天花에 대한 內容이다⁴⁵⁾.

② 溫病辨證

本書에서는 仲景의 學說을 따랐지만 그는 별도로 《疫癘》⁴⁶⁾라는 一門을 세웠다. 그곳에서는 “其病與時氣 溫熱病相類”라고 하였고 “病無長少 卒皆相似 有如鬼厲之氣”라고 하여 疫癘는 別다른 일종의 病源에서 발생하는 傳染病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⁴⁷⁾.

(나) 鑑別診斷

晉, 隋, 唐 三代의 醫家는 疾病의 관찰이 자세하였으므로 鑑別診斷上의 功헌이 매우 컸다. 隋代 巢氏의 《諸病源候論》은 분류와 계통화를 중시한 診斷學 專門書籍인데 그는 매우 세밀한 分門과 別類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매우 높은 類證鑑別의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면 第三十六篇의 《獸毒病諸候》와 《蛇毒病諸候》, 《雜毒病諸候》⁴⁸⁾에서는 동물과 곤충에 의하여 손상되어 발생하는 疾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술되어 있다. 動物咬傷중에는 말과 개, 狂犬, 쥐, 毒蛇에 의해서 물렸을 때에 대해서 나와 있다. 諸魚傷人에는 鮪, 鯪, 鰻, 등에 물린 內容이 나와 있다. 蛇傷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물리자마자 죽는 경우이고 하나는 물린 部位가 紅腫하면서 皮膚가 壞亂된 것이다. 昆蟲性 皮膚病 중에는 蜂, 蝎, 蠶, 蜈蚣 등의 벌레에 물린 것이 나와 있다. 이밖에 《金瘡病諸候·金瘡出蟲候》⁴⁹⁾에서는 蠅蟻病이 묘사되어 있고, 《小兒病諸候·頭多虱生瘡候》⁵⁰⁾에서는 虱病이 描寫되어 있고, 《瘡病諸候·疥候》⁵¹⁾중에는 疥의 형태와 습성을 묘사하고 있고, 大疥, 馬疥, 水疥, 干疥, 濕疥 등의 五種 類型으로 나누고 있다. 《蠱毒病諸候·沙虱候》⁵²⁾에서는 蠱의 형태와 습성, 전형적인 皮膚症狀이 묘사되어 있다. 또 《瘡病諸候》⁵³⁾

45) 鄭鐵濟主編, 上揭書. p.34.

46) 巢元方, 上揭書. pp.636 - 637.

47) 鄭鐵濟主編, 上揭書. p.42.

48) 巢元方, 上揭書. pp.804 - 806.

49) 巢元方, 上揭書. pp.808 - 812.

50) 巢元方, 上揭書. p.868.

51) 巢元方, 上揭書. pp.795 - 804.

52) 巢元方, 上揭書. pp.730 - 740.

53) 巢元方, 上揭書. pp.795 - 894.

44) 巢元方, 上揭書. p.710.

와 《四肢病諸候》⁵⁴⁾중에는 物理的 因素에 의하여 發生한 皮膚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溫熱에 의해서 발생하는 夏日沸爛瘡(粟粒과 같은 가벼운 症狀을 가진 類型과 뜨거운 膿에 의해서 瘡을 이루는 重한 症狀으로 나뉜다.)과 湯火瘡(湯傷과 燒傷), 灸瘡이 있고 寒冷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冬爛腫脹(發赤宗通하는 輕形과 皮肉이 壞亂하고 肢節이 脫落하는 重形으로 나뉜다.)이 있고, 기계적인 자극으로 일어나는 手足發臍와 手足逆臍, 肉刺(鷄眼), 手足破裂 등등이 있다. 지금의 皮膚科의 疾病分類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諸病源候論》이 유사한 疾病을 分門하고 別類하여 한 군데에 모아 놓았고 재통적으로 논술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各種 疾病에 자세한 觀察을 하였으며 자세하게 그들의 특징을 분류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比較와 鑑別, 分類를 통하여 각종 유사한 疾病의 차이점과 유사점들을 밝혀 내었으며 그런 후에 有關한 조건과 病情, 특징에 대해서 精確한 분석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諸病源候論》은 中醫學에 있어서 疾病의 診斷分類와 系統化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범례가 되고 있으며 지금에는 그곳에서 묘사하는 顯證에 근거하여 적지 않은 疾病에 대해서 구체적인 診斷을 시행하고 있다.

(다) 각종 診斷法

① 舌診의 내용

本書에는 舌診에 많은 發展이 있어서 《黃病諸候》⁵⁵⁾중에는 비교적 상세한 論述이 있다. 《噤黃候》중에는 “身而發黃 舌之大脈起 青黑色 舌噤強不能言”이라고 하였고 《五色黃候》에는 “舌下白垢生”이라고 하였고 “其人身熱發黑黃 視其脣黑 眼黃 舌下脈黑者是”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舌之大脈”과 “舌下脈”은 모두 舌深靜脈을 이르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舌下望診法 중에 가장 빠른 記錄인 듯하다.

本書에서 혀의 病에 대해서 논한 부분은 매우

많다. 그중에는 傷寒, 時氣, 熱病, 溫病의 舌狀에 대해서 論하고 있는데, 대개가 《內經》, 《傷寒雜病論》과 같다. 기타 各科의 疾病 舌診도 描寫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蠱毒病諸候》⁵⁶⁾중에는 藥物中毒의 舌狀이 실려 있는데 예를 들면 鉤吻 등의 中毒에 “舌頭痛”, “舌色赤多黑少” 등의 症狀이 보이고 菰草中毒에는 “口噤 不覺嚼舌”이 보이고 또 다른 菰草中毒에는 “口噤而乾 舌不得言”이 보이며 蠱毒에는 “舌本脹強”이나 “舌上生瘡”이 보인다. 《婦人雜病諸候》⁵⁷⁾에는 難産時에 産婦의 舌狀에 根據하여 母子의 死生을 판단하는 經驗이 실려 있다. 産婦에게 出産이 곤핍할 때 面靑하면서 舌赤하며 口沫出하는 자는 母死兒活의 徵兆이다. 舌靑黑하면서 胎上이 冷한 자는 子死腹中의 徵候이다. 《小兒雜病諸候》⁵⁸⁾에서는 小兒에게 癩疾이 발하기 전의 前兆證을 제시하고 있는데 “搖頭弄舌”이라고 하였고 心臟에 熱이 있는 徵候인 “舌上生瘡”, 心脾에 熱이 있는 “舌腫”, 新生兒의 “噤”에서 보이는 “口裏忽結聚 生于舌上 如黍粟大 令兒不能取乳” 등이 실려 있다. “噤”을 어떤 사람은 新生兒의 脚氣라고 보고 있다. 별도로 鵝口瘡와 燕口瘡이란 것이 실려 있다. 《脣口病諸候》⁵⁹⁾에는 口臭에 “舌上白黃起 口常臭也”라고 하였고 口舌瘡에 “熱乘心脾 氣衝于口舌 故令生瘡也”라고 하였고 口舌乾焦에 “府臟虛熱 氣乘心脾 津液竭燥 故令口舌乾焦也”라고 하였고 舌腫強에 “心脾虛爲風熱所乘”, “舌腫脈瘡”이라고 하였고 重舌에는 “心脾有熱 熱氣隨脈衝于舌本 血脈脹起變生 如舌之狀 在于舌本之下” 등이 실려 있다⁶⁰⁾.

② 胸腹切診의 내용

隋唐時期的 胸腹切診은 漢晉以來의 四診의 성취를 계승하고 많은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諸病源候論》의 腹診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胸腹檢診을 全身檢診의 일개 조성부분으로 삼았으며 檢

54) 巢元方, 上揭書, pp.764 - 766.

55) 巢元方, 上揭書, pp.643 - 646.

56) 巢元方, 上揭書, pp.730 - 740.

57) 巢元方, 上揭書, pp.812 - 842.

58) 巢元方, 上揭書, p.868.

59) 巢元方, 上揭書, pp.760 - 762.

60) 鄭鐵濤主編, 上揭書, p.20.

診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㉔ 腹痛 : 주로 《心病諸候》와 《腹病諸候》, 《心腹諸病候》, 《疝痛諸候》⁶¹⁾에 나타난다. 예를 들면 《心痛候》 중에는 “朝發夕死 夕發朝死”하는 眞心痛과 “心下急痛”의 脾心痛, “腹脹歸于心而痛甚”하는 胃心痛을 구별한다. 한 가지 痛症은 心에 있고 한 가지 痛症은 心下에 있다. 《腹痛候》 중에는 急性의 “腹痛而腸鳴”과 全腹痛, 臍下痛, 少腹痛의 “寒中”과 “臟腑虛而有寒 客于腹內 連滯不歇 發作有時 發則腸鳴而腹絞痛”하는 寒中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아울러 “寒中久痛不瘥 冷入于大腸則變爲下痢”라고 하고 있다. 《疝痛諸候》 중에는 腹痛의 描寫에 대해서 구체적인데 “風冷入于腹內 或少腹痛 不得大小便 或手足厥冷繞臍痛 自汗出 或冷氣逆上搶心腹 令心痛 或裏急而腹痛”이라고 하였다. 이 證候들이 한 가지가 아니므로 諸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大腸病候》⁶²⁾ 중에는 大腸病을 虛實 二證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氣實하면 “腸內切痛 如錐刀刺 無休息”이라고 하였고 氣虛하면 “善泄”한다고 하였다. 《霍亂病諸候》⁶³⁾에서는 霍亂腹痛의 描寫에 대해서 “心腹絞痛”과 “先心痛者則先吐 先腹痛者則先利 心腹并痛者則吐利俱發”이라고 하였다. 이런 자료들은 당시에 腹痛에 대해서 部位에 따라서 감별하는 診斷方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心, 心下, 胃脘, 小腹, 繞臍, 大腸, 心腹, 腸 등이다. 疼痛의 性질과 정도에 따라 감별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疝痛, 切痛, 絞痛, 錐刀刺痛, 急痛, 疾痛, 痛甚, 痛欲死 등이다. 疼痛의 放射方向에 따라서 감별하였는데 예를 들면 陰器와 서로 끌어당기면서 아픈 것, 痛症이 小腹部와 연결되는 것, 腰背와 痛症이 연결되는 것 등이다. 疼痛 發作이 오래되었나 잠시동안인가를 가지고 감별하는데 예를 들면 時發時止, 乍間乍甚, 痛而不歇, 痛無休息, 久痛不差 등이다. 疼痛의 隨伴 症狀을 가지고 감별하는데 예를 들면 不思食, 吐利, 裏急, 小便難, 不得大小便, 四肢厥冷, 自汗出, 腸鳴, 腹脹, 不得食 등이다.

61) 巢元方, 上揭書, pp.674 - 680.

62) 巢元方, 上揭書, pp.672 - 673.

63) 巢元方, 上揭書, pp.712 - 718.

㉕ 腹脹 : 주로 《腹痛病諸候》⁶⁴⁾, 《脾病候》⁶⁵⁾, 《癖病諸候》⁶⁶⁾, 《否噎病諸候》⁶⁷⁾에서 보인다. 우선 胃病에 腹脹이 많이 보이는데 胃氣가 實하면 “病臍脹氣滿”하고 胃氣가 虛하면 “饑不能受收穀 飧泄嘔逆”이라고 하였다. 胃寒하면서 嘔吐가 있으면 “煩滿”하고 “大便難”하고 噎醋하면 “腹脹而氣逆 好噫而吞酸 氣息醋臭”한다고 하였다. 胃氣가 反하면 “朝食暮吐 暮食朝吐 心下牢 大如杯 往來寒熱 甚者食已即吐”라고 하였다. 腹脹하면서 腸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데, “腹滿氣微喘”하고 “腹滿向”하면 陽이 實하고, “腹脹滿 煩擾不得臥”하면 陰이 實하다. “腹滿不欲食”하면 虛脈이고, “腹脹善鳴”하고 “苦小腹滿引腰痛”하면 奔腹脹이다. “其脈不已 連滯停積 時瘳時發”하면 오래되면 腹脹이 된다. 腹脹하고 痞塞不通하는 疾病 중에는 否, 滿, 噎의 세가지 病이 있다. 어떤 것은 기능적인 것일 수 있고, 어떤 것은 기질적인 것일 수 있고, 어떤 것은 上部 消化道の 腫瘤일 가능성이 있다. 否는 근심이나 성냄으로 인하여 火氣가 鬱積되거나 높은데서 떨어져서 內臟이 손상되어서 생기는데 “腹內氣結脹滿 閉塞不通 有時壯熱”한다고 하였다. 滿은 氣가 胸膈의 사이에 결한다고 하였는데 혹은 “胸中氣結煩悶 津液不通 飲食不下 羸瘦不爲氣力”이라고 하였고, 혹은 “心下苦實滿噎 輒醉心 食不消 心下積牢結在胃中”이라고 하였고, 혹은 “心腹脹滿 咳逆 腹上苦冷 雷鳴繞臍痛 食不消”라고 하였다. 噎은 “飲食入 噎塞不通 胸內痛 不得喘息 食不下”라고 하였다.

㉖ 腹水 : 주로 《水腫病諸候》⁶⁸⁾에 보인다. 大病 後나 혹은 積虛勞損에 의한 “大腹水腫”에 보인다. 見證은 “水氣不散 流溢腸外 三焦閉塞 小便不通 水氣聚結于內 乃腹大而腫 故四肢小, 陰下濕”이라고 하였다. “水蠱”은 “腹內結塊硬剛 在兩脅間膨脹滿”이라고 하였고 이밖에 “水假”, “水蠱”, “水癖”등의 症狀을 기술하고 있다.

64) 巢元方, 上揭書, pp.675 - 677.

65) 巢元方, 上揭書, p.669.

66) 巢元方, 上揭書, pp.701 - 703.

67) 巢元方, 上揭書, pp.703 - 705.

68) 巢元方, 上揭書, pp.708 - 712.

㉔ 急腹證 : 주로 《癰疽病諸候》⁶⁹⁾, 《九蟲病諸候》⁷⁰⁾, 《金瘡病諸候》⁷¹⁾에 보인다.

㉕ 腹部包塊 : 주로 《積聚病諸候》⁷²⁾에서 보인다.

㉖ 胸脇切診에 있어서는 주로 《痰飲病諸候》⁷³⁾, 《癰病諸候》⁷⁴⁾에 보인다⁷⁵⁾.

③ 聞診에 대한 내용

本書는 聞診에 대한 기체에 비교적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言語, 聲音, 咳嗽, 上氣, 嘔逆 등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각종 疾病의 證候를 판단하는데 예를 들면 虛勞, 中風, 氣病, 咳嗽 등의 內科病症에 있어서 疾病의 表裏寒熱, 豫候吉凶, 病理變化를 판단하는데 應用하고 있으며 嗅氣味하는 것은 《脈經》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커다란 발전을 이루고 있다. 溫病과 時病, 疫癘病 등 傳染性 疾病의 발생에 대해서 “感其乖戾之氣而發病”이라고 하였는데 後世 溫病學者들의 “辨氣”理論에 基礎를 제공하고 있다.

本書는 風病의 諸候를 論할 때에 “風痺之狀……時能言者可治 不能言者 不可治”라고 하였고 “病苦悲傷不樂 惡聞人聲 少氣 時汗出”이라고 하여 診脈에 “寸口脈 兩手各絕者 不可治也”라고 한 내용과 서로 참고하여 語聲을 聞診하는 것으로 病의 死生을 決定한다고 하였다. 《虛勞病諸候》⁷⁶⁾ 중에는 上氣, 少氣, 咳嗽, 嘔逆, 吐利 등을 專門으로 論하는 句節이 있는데 “肺主于氣 氣爲陰 氣有餘則喘滿逆上 虛勞之病 或陰陽俱傷 或血氣偏損 今是陰不足 陽有餘 故上氣也”라고 하였고 “虛勞傷于肺 故少氣 肺主氣 氣爲陽 此爲陽氣不足故也”라고 하였고, “虛勞而咳嗽者 臟腑氣衰 邪傷于肺故也…… 或喘息上氣 或喘逆唾血 此等臟腑之咳也……”라고 하여 聞診으로 病因, 病位 및 病의 虛實을 논하였다. 《論傷寒五臟熱候》⁷⁷⁾ 중에서는

“其人先苦身熱噓…… 狂言默默 惡風欲嘔者 此肝熱也…… 時妄笑者 此心熱也…… 惡聞食臭者 此脾熱也”라고 하여 語聲을 듣는 것으로 그 病位를 定하였다. 傷寒病과 熱病, 氣病의 諸候를 論할 때에는 《傷寒論》과 《金櫃要略》의 論을 많이 계승하였다.

嗅氣味 方면의 論述에서는 本書는 多方面의 描寫가 있다. 예를 들면 “噯醋者 由上焦有停痰 脾胃有宿冷 故不能消穀 穀不消則脹滿而氣逆 所以好噯而吞酸 氣臭醋臭”라고 하였고, “口臭由五臟六腑不調 氣上胸膈 然腑臟氣躁厥不同 繼積胸膈之間 而生于熱 衝發氣口 故氣臭也”라고 하였고, “腹內脹滿 噯氣酸臭 吞酸氣急 所以謂之酒癖宿食不消也”라고 하였고, “宿食不消……令人腹脹氣急 噯氣酸臭 時復憎寒壯熱是也……”라고 하였다. 《小兒雜病諸候》⁷⁸⁾ 중에는 “其糞黃臭 此腹內有伏熱 宜將服龍膽湯 若糞白而酢臭 則來宿寒不消 當服紫雙丸”이라고 하였고 “三焦不潤 則寒氣獨留 膈上不通 則令兒乳哺不得消下 噯氣酸臭胸膈痞滿 甚則氣息喘急”이라고 하였다⁷⁹⁾.

(3) 《王叔和脈訣》

《王叔和脈訣》은 後代의 高陽生이 叔和의 이름을 빌어서 撰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成書時代에 대해서는 意見이 분분한데 高陽生에 대한 史籍이 보이지 않는 관계로 그 成書時期가 분명하지 않다. 그에 대한 現代의 研究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혹은 <<脈訣>>이라고 簡稱한다. 모두 一卷이다. 전해지는 바로는 六朝時代의 高陽生이 王叔和의 이름을 托名하여 지은 것이라고 한다. 高氏의 行蹟은 考察할 수 있는 方法이 없다. 이 책의 成書時期는 王叔和의 이후로 隋唐交替期라고 推定된다. 全書는 七言歌訣로 쓰여 있다. 우선은 診脈入式으로 三部九候, 下指定位 등을 提示하였고, 다음으로는 七表八裏九道脈法을 提示하였으며 마지막 으로 여러 가지 疾病의 脈法과 婦人, 小兒의 脈法 등을 提示하고 있다. 全書를 綜合해 보면 基本的

69) 巢元方, 上揭書. pp.774 - 788.

70) 巢元方, 上揭書. pp.689 - 691.

71) 巢元方, 上揭書. pp.808 - 812.

72) 巢元方, 上揭書. pp.691 - 693.

73) 巢元方, 上揭書. pp.699 - 701.

74) 巢元方, 上揭書. pp.701 - 703.

75) 鄭鐵濤主編, 上揭書. pp.26 - 30.

76) 巢元方, 上揭書. pp.573 - 589.

77) 巢元方, 上揭書. pp.614 - 615.

78) 巢元方, 上揭書. p.868.

79) 肖相如主編, 上揭書. pp.11 - 12.

으로 叔和의 <<脈經>>의 본 뜻을 따르고 있으며 간혹 가다 새로운 內容을 提示하는 部分도 있다. 예를 들면 脈象을 24種으로 歸類하는데 있어서 <<脈經>>의 數, 散, 革의 세가지 脈을 牢, 長, 短으로 바꾸었다. 數脈이 빠져서 妥當하지 않은 것을 빼고 나머지는 <<脈經>>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七表八裏九道脈의 分類方法은 高氏가 처음으로 提唱한 것인데 後代에 이를 따르는 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책 안의 어는 觀點이나 脈義의 解釋은 王叔和의 解釋과 차이가 있으며 目次나 體系가 같지 않으며 文字는 通俗의이고 淺薄하다. 따라서, 後世에 非難하는 자가 많았다. 客觀的으로 본다면 <<脈訣>>은 脈學史上에 매우 큰 影響을 끼친 著作이다. <<脈經>>으로 根據를 삼았으며 通俗的인 歌訣의 形式으로 脈象과 脈理 및 主病과 臨床意義를 敘述하였다. 특히 初學者들이 익숙하게 暗誦하기 便하게 하여 脈法의 傳授에 一助를 하였고 널리 퍼지게하여 없어지지 않게 하는 貢獻을 하였다. 즉 이는 “反面教材-否定的인 側面을 否定하여 肯定的인 結果를 얻고자 하는 教材”의 役割을 하였는데 數百年의 批判過程 중에 <<脈經>>의 影響을 더욱 증대시켰고 脈學의 繁榮과 發展을 促進하였으므로 이 또한 손꼽을 수 있는 名著라고 할 수 있다. 本書가 著述된 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세상에 傳播가 되었으며 아울러 여러 種의 板本이 流行하였다. 宋代와 元代의 注本도 적지 않은데 愛惜한 것은 이 時期의 傳本은 이미 모두 亡失되었다는 것이다. 現在에 傳하는 板本 중에 중요한 것은 金代의 長元素가 지은 <<潔古注叔和脈訣>>(現在 日本宮內廳書陵部に 所藏되어 있다.)과 元代 至正九年(1349年)에 廬陵竹評書堂에서 板刻한 <<纂圖方論脈訣集成>>, 明, 熊宗立의 <<勿聽子俗解脈訣>>, 張世賢의 <<圖注脈訣>>, 王文潔이 釋評한 <<王氏秘傳叔和圖注釋義脈訣評林捷徑統宗>> 등이다. 그중에 <<圖注脈訣>>이 가장 많이 流行되었는데 明, 淸을 지나 民國에 이르기까지 各種 復刊本이 刊行되어 60餘種에 달한다⁸⁰⁾.

東洋醫學大辭典

四卷. 宋高陽生撰. 呂復이 지은 羣經古方論에서는 高陽生이 六朝時代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隋唐經籍志에 모두 王叔和의 脈經 十卷이 실려 있는데 그곳에는 脈訣이라고 이름 붙여진 책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안의 글이 鄙賤하여 六朝人이 지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스스로 깊이 考察하지 않은 內容들을 提示하기도 한다. 謝縉翁의 脈經序에서는 “宋 熙寧 初에 林億, 等이 脈經을 校正할 때에 序中에 脈訣이란 稱號가 보이지를 않는 데 陳乃頌의 序에서 비로소 脈訣이 나오면서 脈經이 숨었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의심컨대 脈訣은 혹 熙寧 이후 사람의 著作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하였다. 馬端臨의 文獻通考에서는 熙寧 以前 사람이 僞托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 說中에서 무엇이 옳은지는 알 수 없지만 高陽生이 宋나라 사람인 것은 疑心의 여지가 없다. 그 책은 또 스스로 七表八裏九道の 이름을 세우고 있는데 脈經과는 不合한다. 그러므로, 論者들이 批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全書의 大指는 脈經의 內容을 基礎로 하여 완성된 것이다. 文辭가 鄙賤한 것은 後代에 전해주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見解가 前人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책을 쓰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叔和를 托名한 것에 있어서는 後人들이 책을 전할 때에 거짓으로 叔和를 탁명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高氏의 本意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이 叔和의 脈經을 어지럽혔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¹⁾.

본 論考에서는 맨 앞의 研究方法에서도 밝혔듯이 <<脈訣>>의 成書時期와 <<脈經>>과의 관계, 독특한 內容 등에 관한 보다 깊은 研究가 필요하다고 判斷되어 따로 論文을 作成하여 발표하고자 하며 본 論考에서는 <<脈訣>>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는 것만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3. 現存하기는 하지만 後世에 끼친 影響이 微微

80) 高文鑄主編,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北京, 華夏出

版社, 1997, p.1028.

81)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1987, p.578.

한 診斷學 專門書籍

敦煌石室에서 출토된 醫方書들은 아직까지 復元이 完了가 되지 않아서 書志學者를 제외한 일반 醫學者들은 볼수가 없는 서적이다. 그런데 최근의 中國側 研究를 검토하면 그에 대한 研究結果들이 많지는 않지만 소개가 되고 있다. 그 研究에 의하면 敦煌脈書는 대략 7卷으로 이루어져 있는데《玄感脈經》, 《平脈略例》, 《五臟脈候陰陽相乘法》, 《青烏子脈訣》, 《七表八裏三部脈》, 《亡名氏脈經第一種》, 《亡名氏脈經第二種》 등이란 것이다. 그중 《玄感脈經》, 《青烏子脈訣》, 《七表八裏三部脈》에 대해서 검토된 研究結果를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玄感脈經》

가. 著者

《玄感脈經》一卷은 撰者를 알 수 없다. 古醫籍과 書籍目錄과 史書의 藝文志등에 모두 기재된 바가 없다. 1952年 羅福頤는 《西陲古方技書殘卷匯編》에는 《玄感脈經》에 대한 설명에서 “《舊唐書·經籍志》를 고찰해 보니 《玄感傳尸方》一卷이 있으며 蘇游가 撰하였다고 注를 달고 있다. 玄感은 蘇游의 字이므로 《玄感脈經》도 혹 同一人이 撰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였다. 《新唐書·藝文志》에는 “玄感傳尸方一卷 鐵粉論一卷 蘇游撰”이란 記載가 있다. 《宋史·藝文志》에는 “玄感傳尸方一卷 玄感論一卷 蘇游撰”이란 記載가 있다. 이상의 史書를 근거로 살펴 본다면 蘇游의 著作은 舊唐書에 맨 처음 보이고 蘇游는 唐代나 唐以前的 醫家라고 추측할 수 있다. 蘇游가 撰한 《玄感傳尸方》, 《玄感論》 등에 모두 “玄感”이란 두 글자가 앞에 있는 것과 二書가 모두 唐代의 서적인데 《玄感脈經》 또한 唐代의 寫本임을 고려할 때에 “玄感은 蘇游의 字이다”란 논술이 틀리지 않다면 《玄感脈經》의 作者는 蘇游라고 推斷할 수 있다⁸²⁾.

나. 成書年代 및 抄寫年代

《玄感脈經》이 언제 完成되었고 언제 쓰여졌는

가 하는 것도 모두 기재된 것이 없다. 다만 책중에 출현하는 避諱字를 가지고 추정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책중에 “且”字가 세 번 출현하는데 두 번은 “尸”라고 쓰여져고, 한번은 “口”라고 쓰여졌다. “且”字의 획수를 빼먹는 避諱法은 敦皇의 기타 書籍과 醫書중에 많이 출현하고 있다. 《舊唐書·睿宗本紀》를 고찰해보면 “睿宗玄眞大聖大興考皇帝諱且”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本書의 “且”字에서 획수를 빼먹는 避諱法은 睿宗의 諱를 피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玄感脈經》의 성서연대나 초사연대는 李且이 皇帝에 있던 時氣(約 684 - 711年)나 혹은 그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⁸³⁾.

(2) 《青烏子脈訣》과 《七表八裏三部脈》

가. 作者, 編撰年代 및 抄本年代

《青烏子脈訣》에는 作者가 記錄되어 있지를 알 수 없다. 書名으로부터 分析하면 “青烏子”는 作者의 別號인 듯하다. 舊唐書·經籍志의 五行類 中에는 “青烏子三卷 葬經八卷 又十卷 又二卷 肖吉撰”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肖吉은 青烏子の 本名이라고 볼 수 있다. 肖吉은 南北朝(六世紀前後)의 사람으로 《北史卷八十九》와 《隋書卷七十八卷》에 모두 전하는 것이 있다. 肖吉은 《北史八十九卷》과 《隋書七十八卷》에 그에 대한 記載가 전하는데 梁武帝의 兄인 長沙王肖懿의 손자이다. 陰陽算術에 통하였고 隋나라에 들어간 후 高祖의 陰陽書를 考定하여 《金海三十卷》과 《宅經八卷》, 《樂譜二十卷》, 《帝王養生方二卷》, 《青烏子三卷》 및 기타 著作을 撰하였다. 帝王養生方은 中醫養生方書인데 肖吉이 醫術에 통달하였다는 것을 설명하므로 脈訣을 撰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青烏子脈訣》은 抄寫年代와 撰寫年代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文中에 六朝의 諱字인 “食卞”이 보인다. 清·王筠의 《說文句讀》을 보면 “六朝諱言反 故改飯爲‘食卞’”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青烏子》는 대략 六朝의 말기에 成書된 것으로 推斷할 수 있다. 이와 肖吉의 生活 시대도 일치한다.

《七表八裏》는 원래 따로 저술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이 《王淑和脈訣》 중의 “七表脈”과 “八裏

82) 王淑民, 玄感脈經初探, 上海中醫藥雜誌 1987年 8期. p.35.

83) 王淑民, 上揭書. p.35.

脈”, “三部脈”과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王淑和脈訣》은 王淑和가 생활하던 시기 이후에 출현한 것이며 體例와 내용이 《脈經》과는 관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후대 醫家들은 《王淑和脈訣》이 後人이 托名하여 著作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七表八裏》 또한 王淑和가 撰한 것이 아니며 작자는 佚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편찬된 시기는 唐初나 혹은 唐以前으로 사료되는데 그 이유는 두 권의 脈訣과 같이 출토된 書籍 중의 하나인 《明堂五臟論》 중에 唐太宗 李世民을 諒하여 “藥”을 “ ”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아 唐初의 寫本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⁸⁴⁾.

나 文獻가치와 臨床의 실용가치

《靑烏子》와 《七表八裏》, 《王淑和脈訣》(이하 《脈訣》이라고 簡稱한다.)의 대부분의 내용은 같다. 《靑烏子》의 全文은 《脈訣》의 “左右手診脈歌”는 서로 내용이 같다. 《七表八裏》와 《脈訣》중의 “七表脈”, “八裏脈”, “三部脈”은 서로 같다. 예를 들면 《七表八裏》의 八裏脈의 微脈條 중에는 “微脈關前著不任 當關鬱結氣排心 尺上更微 臍下積 體寒寒飲卽呻吟”이라고 하였는데 《脈訣》에서는 이 脈을 “微脈關前氣上侵 當關鬱結氣排心 尺部見之臍下積 身寒飲水卽呻吟”이라고 하였다. 이 두 서적은 “微脈”의 主病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고 文義는 기본적으로 같다. 또 《靑烏子》의 “左手腎部脈歌”에서는 “左手腎脈名三相 四十五動應無事 指下急急動如弦 熱毒風氣時時發 指下忽然 來見緩 水臟傷敗脈又亂 此病多從冷變成 療時開破千金窠 二十四動脈多般 春脈不見夏不堪 此時努力歸泉路 眼下應當不久灾”라고 하였는데 《脈訣》에서는 “左手腎脈指第三 四十五動無疾咎 指下急急動弦時 便是熱風之脈候 忽然來往慢慢極 腎臟敗時須且救 此病多從冷變來 療時開破千金口 二十五動沈卽來 腎絕醫人無好手 努力黃泉在眼前 縱在也應終不久”라고 하였는데 이상의 두 歌訣을 볼 때 第一句에서 《靑烏子》에서는 “名三相”이라고 한 것을 《脈訣》에서는 “指第三”이라고

하였고 第二句에서 《靑烏子》에서는 “應無事”라고 하였는데 《脈訣》에서는 “無疾咎”라고 하였으며 第四句에서 《靑烏子》에서는 “熱毒風氣時時發”이라고 하였는데 《脈訣》에서는 “使時熱風之脈候”라고 하였다. 비록 문자에 출입이 있지만 문 의는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겨우 九·十餘句의 文 의만이 부동하다. 이는 《脈訣》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면서 宋이후의 醫家들에 의해서 많은 수정이 가해졌는데 敦煌의 卷子는 唐初의 문자상황을 보존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비교를 통하여 《靑烏子》와 《七表八裏》의 두 권의 책과 《脈訣》은 같은 淵源을 가진 서적이란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脈訣》의 成書年代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는 初期 文獻이라고 할 수 있다.⁸⁵⁾

4. 晋·隋·唐期の 주요 綜合醫書 중에 보이는 診斷學 內容

이 時期의 綜合醫書로는 葛洪의 《肘後救卒方》, 孫思邈의 《千金要方》, 《千金翼方》, 王壽의 《外臺秘要》, 宇妥·元丹貢布의 《四部醫典》을 들 수 있다. 診斷學 관련 內容을 기본적으로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現代의 診斷學 書籍에 비교적 많은 引用이 되고 있는 書籍은 《肘後方》과 《千金方》이다. 그에 대해서 《實用中醫診斷學》에서 연구한 內容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1) 《肘後備急方》 중의 診斷學 內容

(가) 疾病에 대한 認識

本書에서는 이미 急症과 傳染病(霍亂, 傷寒, 時氣, 溫病, 瘴氣, 疫癘, 諸瘡), 內科病, 外科, 皮膚病, 五官科病, 蟲獸所傷, 中毒 등을 구분하고 있다. 그는 天花(瘡瘡), 羊蟲病(沙虱病)에 대한 敘述을 하였는데 이것은 中國에서 맨 처음 있는 일이다⁸⁶⁾.

(나) 舌診에 대한 內容

晋의 葛洪은 맨 처음으로 舌下絡脈이 疾病이 들었을 때 생기는 變化와 疾病을 診斷하고 治療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다.

84) 王淑和, 敦煌莫高窟中的脈訣著作, 上海中醫藥雜誌 1988年 7期. pp.38 - 39.

85) 王淑和, 上揭書. p. 39.

86) 鄭鐵濤主編, 上揭書. p.7.

그는 《肘後備急方》의 “虜黃”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病若已深 應看其舌下邊 有百脈 彌彌處 蘆刀割破之 紫血出數升亦歇 然此須慣解剖 者 不解割 忽亂舌下青脈 血出不止 使煞人 方可燒 紡鈴鐵 以燒此脈令焦”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虜黃”은 일종의 急性發黃이 위주가 되는 傳染病이다. 病情이 惡化할 때에는 舌下의 絡脈을 觀察하여 放血시키는 治療法으로 治療한다. 만일 動脈을 잘못 잘랐다면 紡鈴鐵을 불에 달구어서 지지는 방법으로 止血시킬 수 있다⁸⁷⁾.

(다) 溫病辨證에 대한 내용

當代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原因이 다른 傳染病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本書에서는 “傷寒 時行 溫疫 三名同一種耳 而源本小異”라고 하였는데 이는 三種의 疾病이 동일한 종류이지만 病源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傷寒 雅士之稱 溫疫 時疫 天行 田舍 問語 爾”라고 하였다. 따라서, 《治傷寒, 時氣, 溫病方》에서는 傷寒과 溫病 말고도 虜瘡(天花)과 時行發黃(傳染性肝炎) 등의 疾病도 제시하고 있다⁸⁸⁾.

(라) 聞診에 대한 내용

《卷一·序例·診候第四》 중에서는 “古之善爲醫者 上醫醫國 中醫醫人 下醫醫病 又曰上醫聽聲 中醫察色 下醫診脈 又曰上醫醫未傷之病 中醫醫欲病之病 下醫醫已病之病 若不加用心意 于事混淆 既病難以救矣”라고 하여 聽聲, 察色, 診脈의 三法 中에 聽聲하는 것을 가장 높은 경지에 놓았다. 여기에서 그가 聞診을 매우 중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⁹⁾.

(2) 《千金方》 중의 診斷學 내용

(가) 脈診에 대한 내용

《千金方》의 脈診은 기본적으로 《脈經》의 내용을 거의 따르고 있다. 그에 대한 《實用中醫診斷學》의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千金要方》의 卷二十八에는 전적으로 《平脈》의 一篇이 提示되고 있는데 脈에 대한 여러 내용을 수집하여 篇目を 나누어 배열하고 있다. 우

선은 《平脈法》과 《診五臟輕重法》, 《指下形象》, 《五臟脈所屬》을 통하여 診脈의 방법과 기본적인 要點을 總論으로 제시하고 있고 寸關尺과 浮中沈의 取法과 臟腑의 區分配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分別病形狀》, 《三關主對法》, 《五臟積聚》, 《陰陽表裏虛實》을 통하여 각종 脈象의 主病과 寸關尺 分部脈象의 主病, 각종 脈象의 屬性을 論述하고 있다. 끝으로는 《四時相反脈》, 《脈動止投數疏數死期年月》, 《扁鵲診諸反逆死脈要訣》, 《診百病死生要訣》을 통하여 專門의 으로 각종 病脈의 豫後를 討論하고 있다. 《千金方》의 論脈은 간략하면서 풍부하여 이해하기 쉽다. 孫思邈은 脈診의 重要性에 대해서 “夫脈者 醫之大業也 既不深究其道 何以爲醫哉”라고 하여 醫師가 반드시 마음을 모아서 工夫해야 한다고 하였다. “凡人稟形 氣有中適 有躁靜 各各不同 氣脈潮動 亦各隨其性韻”이라고 하고 “凡人修短 其形各異”라고 하여 同身寸法에 의하여 寸關尺을 確定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從肘腕中橫紋至掌魚際後紋 却而十分之 而入去九分 是爲尺 從魚際後紋却還度取十分之一則是寸 寸十分之而入取九分之則寸口也 此處其骨自高 故云陰得尺內一寸 陽得寸內九分 從寸口入却行六分爲關分 從關分又人行六分爲尺分”이라고 하였는데 寸關尺으로 診察할 수 있는 部位를 一寸九分이라고 보았고 寸關尺이 각각 六分, 六分, 七分이라고 본 것 같다. 《五臟脈所屬》은 단지 左右만을 나누었고 다시 內外를 나누지 않았는데 왼손의 寸關尺으로 心肝腎을 配屬하였고 오른손의 寸關尺으로 肺脾腎(命門)을 보았다. 三部脈의 脈象에 대해서 그는 “凡三部脈大都欲等 只如小兒細人 婦人 脈小軟 小兒四五歲者 脈呼吸八至細數吉”이라고 하였다. 《千金翼方》에서는 다시 말하기를 “人大而脈細 人細而脈大 人樂而脈實 人苦而脈虛 性急而脈緩 性緩而脈躁 人壯而脈細 人羸而脈大 此皆爲逆”이라고 하여 반드시 體質의 차이와 脈象의 關係를 중시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⁹⁰⁾.

(나) 舌診에 대한 내용

《千金要方》에서는 舌卒腫을 治療할 때에 또한

87) 鄭鐵濤主編, 上揭書. p.20.
88) 鄭鐵濤主編, 上揭書. p.42.
89) 肖相如主編, 上揭書. p.12.

90) 鄭鐵濤主編, 上揭書. pp.12 - 13.

舌下大脈을 出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刺舌下兩邊大脈出血 勿使着舌中央脈 血出不止殺人 不愈 血出數升 則燒鐵渡令去 煨瘡數過以絕血也”라고 하였다.

《千金要方》에는 어떤 病症에 대한 舌狀의 描寫가 있는 것 말고도 책안에 《舌論》과 《舌病》에 관한 專門的인 章이 있다. 《舌論》에서는 “舌者 心主小腸之候也 舌重十兩 長十寸 廣半寸 善用機衝 能調五味也 凡有所啖 若多食鹹 則舌脈凝而變色 多食苦 則舌皮稿而外毛枯焦 多食辛 則舌筋急而爪枯乾 多食酸 則舌肉肥而唇揭 多食甘 則舌根痛而外髮落”이라고 하였고, 또 “心欲苦 肺欲辛 肝欲酸 脾欲甘 腎欲鹹 此五味內合五臟之氣也 若藏熱 則舌生瘡 引唇揭赤 若腑寒 則舌本縮 口噤唇青”이라고 하였다. 《小腸府脈論》에서는 “小腸府者 主心也 舌其外候也 心合于小腸”이라고 하였다. 小腸에 實熱이 있으면 “病若身熱 來去汗不出 心中煩滿 身重 口中生瘡”이라고 하였다. 이런 資料들은 孫思邈이 혀에 대해서 論할 때에 혀의 解剖生理를 重視하고 臟腑의 寒熱을 가지고 舌狀의 變化를 解釋하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舌病》에는 心熱, 心虛熱, 舌腫強滿口, 舌腫起如猪胞, 舌瘡滿口不得語, 舌強不得語, 舌上出血 등의 症狀를 제시하고 있다. 《少小嬰孺方》에는 舌奇形을 말하고 있는데 “小兒初出腹 有連舌 舌下有膜如石榴子中隔連其舌下 後喜分兒言語不發不轉也”라고 하였는데 이는 舌體의 病變이 위주가 되는 것이며 혀의 運動을 언급하고 있다(91).

(다) 辨證에 대한 내용

① 六經辨證

唐代 孫思邈의 《千金方》에서는 傷寒을 論할 때에 病으로 證을 總括하고 證으로 治法과 治方을 總括하는 것을 重視하였다. 특히 太陽병의 辨證治療를 중시하였다. 그는 “尋方之大義 不過三種 一則桂枝 二則麻黃 三則青龍 此三方 凡療傷寒不出之也”라고 하여 後世의 “三綱鼎立”說의 시초가 되었다(92).

② 臟腑辨證

唐의 孫思邈이 쓴 《千金要方》중의 雜病은 臟腑를 가지고 分證한 冊이다. 우선은 脈을 論하고 후에 虛實을 나누었다. 이는 表裏絡屬의 關係를 근거로 臟腑를 각각이 分屬하는 組織과 器官에 분류하여 論述하는 방법으로 지금의 內科에서 疾病을 계통적으로 논술하는 것과 類似하다. 예를 들면 肝臟은 肝臟論脈과 肝虛實, 肝勞, 筋極, 堅癥積聚로 나뉘어 있고 膽腑는 膽腑論脈과 咽門論, 髓虛失, 吐血 등으로 나뉘어 있다. 그 장점은 病症의 분류에 계통성이 비교적 강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病症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지 않아서 별로 상관성이 갖지 않은 病症들을 함께 열거하여 分屬상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吐血을 肺와 胃에 포함시켰고, 內衄을 膽腑의 안에 나열하였으며 九蟲을 모두 大腸府의 안에 나열하였으며 霍亂을 膀胱府의 안에 나열한 것들을 들 수 있다(93).

③ 溫病辨證

唐나라의 孫氏 《千金方》은 傷寒에 자세하며 溫病에는 간략한데 “天行疫癘者 則天地變化之一氣也”라고 하고 있다(94).

IV. 結 論

晉·隋·唐期の 診斷學 專門書籍을 考察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이 時期에 著述된 것으로 추정되는 書籍들 중 現存하는 書籍은 모두 여덟 권인데 그중에서 제대로 전해져서 後世 診斷學에 영향을 끼친 診斷學 專門書籍은 《脈經》과 《諸病源候論》 두 권이라고 할 수 있다.

2. <<脈經>>의 意義는 가장 오래된 脈學의 專門書籍으로서, 古代脈法과 後世脈法을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하고 있으며, 精確한 脈名과 그 指標의 제시, 寸關尺에 대한 臟腑의 배속 등 새로운 脈學理論을 제시하고 있으며, 脈診이 韓醫學의 다

91) 鄭鐵濤主編, 上揭書. pp.20 - 21.

92) 鄭鐵濤主編, 上揭書. p.34.

93) 鄭鐵濤主編, 上揭書. pp.38 - 39.

94) 鄭鐵濤主編, 上揭書. p.42.

른 분야에 뒤지지 않는 學問分野로 성장하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3. <<脈經>>에 처음보이는 독창적인 學說은 獨取寸口法의 완성, 脈名과 脈形規範의 制定을 들 수 있고, 寸口三關에 臟腑를 配屬한 것을 들 수 있다.

4. <<脈經>>의 傳播에는 傳寫의 誤謬, 僞書인 <<脈訣>>의 出現, 第十卷 手檢圖의 散佚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現存하는 <<脈經>>이 原著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後代의 많은 醫家들이 <<脈經>>을 脈學의 經典으로 삼았으며 비록 널리 전파되지는 못했지만 賢明한 醫家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傳誦되었으므로 그 基本理論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5. <<諸病源候論>>의 의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辨證 및 鑑別診斷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논하고 病因과 病機에 대해서 敍述한 최초의 證候診斷學 專門書籍이라는 것이다.

6. <<諸病源候論>>은 疾病에 대한 광범하며 정확하고 자세한 인식과 분석을 시행한 점이나 <<內經>>의 기본이론에 근거하여 證候, 病因, 病機, 病變 등을 설명하여 疾病의 診斷과 豫後判斷에 도움을 준 점, 疾病의 체계적인 分類를 시행하여 鑑別診斷에 도움을 준 점 등을 그 내용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7. 최근의 研究에 의하면 敦煌脈書는 <<玄感脈經>>, <<平脈略例>>, <<五臟脈候陰陽相乘法>>, <<青烏子脈訣>>, <<七表八裏三部脈>>, <<亡名氏脈經第一種>>, <<亡名氏脈經第二種>> 등 대략 칠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8. 이 時期의 綜合醫書 중 그 診斷關聯 내용이 현대 診斷學書籍에 많이 引用되는 書籍은 <<肘後方>>과 <<千金方>>의 내용인데 그 理論중에 독특한 것은 없다.

2. 張樹生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7.

3. 嚴世羹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4. 鄭鐵濤主編, 實用中醫診斷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5. 鄭鐵濤主編, 實用中醫診斷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6.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7. 吳承玉主編, 脈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8. 肖相如主編, 中華醫學問診大全,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8.

9.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中國醫學大系 2卷, 서울, 圖書出版鼎談.

10. 王淑民, 玄感脈經初探, 上海中醫藥雜誌 1987年 8期.

11. 王淑民, 敦煌莫高窟中的脈訣著作, 上海中醫藥雜誌 1988年 7期.

12. 高文鑄主編,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13.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1987.

參考文獻

1. 甄志亞主編,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1992.